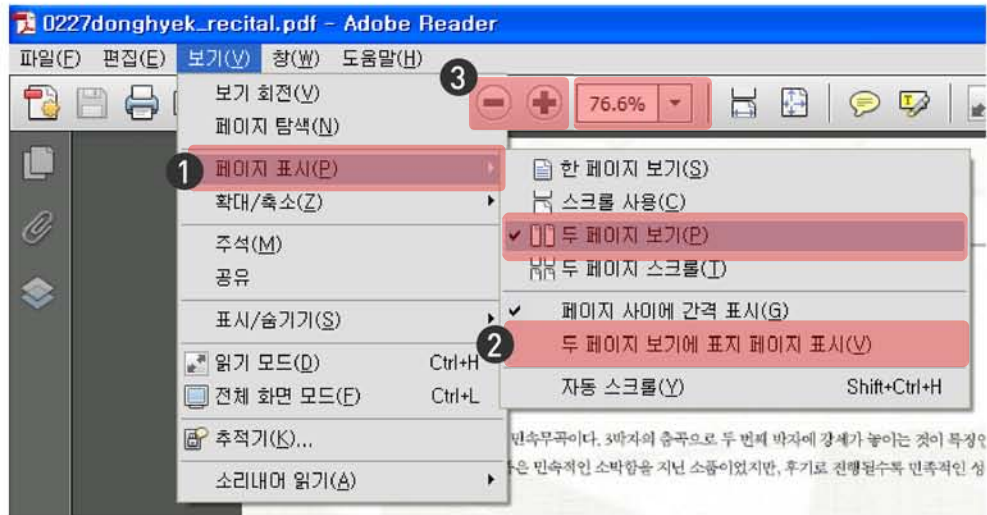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DITTO
Festival
CREDIA

Magic of DITTO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Club BALCONY는 15만명 클래식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로 감동이 있는 무대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인들의 소사이어티를 꿈꾸며 시작된 CIELOS Club은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 신예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후원하며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들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 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여행 프로그램

평창대관령음악제 문화여행 1박 2일 | 8/3(토)~4(일)

조성진 싱가포르 피아노 리사이틀 X 싱가포르 여행 3박5일 | 9/8(일)~12(목)

씨엘로스 초대 프로그램

[CIELOS 회원 + 동반1인 무료 참석 가능]

CIELOS x PIKNIC 피크닉 <페터 팝스트: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 | 6월 예정

CIELOS x SEJONG 세종솔로이스츠의 혁명농크! 갈라콘서트 | 7/2(화) 20시

CIELOS x KUMHO 금호아트홀연세 시리즈 | 2019년 5월 ~ 12월



Magic of Ditto

마법 같았던 디토의 순간들

2007 - 2019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5G

UNIVERSAL

WARNER CLASSICS

UNIVERSAL MUSIC GROUP

www.dittofest.com

www.credia.co.kr

www.clubbalcony.com



Dear friends,

Welcome to our twelfth and final season of Ensemble DITTO.

It has been a wonderful, magical journey. Thank you for supporting us for all of these wonderful years, and for trusting me with your time and support. This entire project has been one of the most meaningful in my entire life and I am grateful beyond words.

This season we have some new faces that I must mention. Jeremy Denk is the most brilliant person I know, and the most complete musician and human being that I am lucky to call a friend. Having him join for my final farewell is so special, and I am sure that you will want to travel the globe to hear him after these concerts. I would like to welcome the brilliant young artists, pianist George Li and cellist James Kim for joining as members of Ensemble DITTO. Both are phenomenal musicians and you will love them.

I personally could not have done this project without the friendship and trust of my dear friends that have been a part of Ensemble DITTO. A special shout out to Daniel Chong for being the most trustworthy, loyal, and dear friend to me for all of these years, to Stefan Jackiw, who I am so very glad to welcome back for these final concerts, and the great Benny Tseng who brings his brilliant playing back to our audiences. Without their leadership, we would be lost. Thanks to Han Kim, who we have literally seen “grow up” and are proud to know that he is a principal clarinet in one of Europe’s great orchestras.

My thanks to CREDIA for the heroic efforts making this project a reality. At a dinner a few seasons ago, the great violinist Kyung Wha Chung turned to our president, Jae-Ock Chung and thanked him for what he does for classical music in Korea. I could not agree more. Thank you for your belief in this project.

And my final thank you goes to you. Our jobs as musicians is to bring music to you, our audience. We have shared many, many special moments, and I hope that the music that I hold so dearly, has given you comfort and joy all of these years.

I will miss DITTO very much, but will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again soon.

Yours,
Richard Yongjae O’Neill

친애하는 여러분께,

양상블 디토의 열두번 째이자 마지막 시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토의 여정은 제게 있어 경이로우며,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12년간 보내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디토 프로젝트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한 조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제가 꼭 소개 드리고 싶은 새로운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저의 지인들 중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제레미 덴크입니다. 제가 운 좋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는 완전한 음악가이자 인간입니다. 그가 저와 함께 마지막 디토 페스티벌에 참여 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의 음악을 듣고 난 후 분명 다시 한번 그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자 먼 여행을 떠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한 신예 아티스트인 피아니스트 조지 리와 첼리스트 제임스 김을 양상블 디토의 새로운 친구들로 환영합니다. 이 두 명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양상블 디토 프로젝트는 친구들 사이의 믿음과 우정이 없었다면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토와 함께 하는 세월 동안 제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우며, 소중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마지막 콘서트에서 다시 디토의 멤버로 합류한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키브, 감탄스러운 연주를 관객들에게 다시 선보일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첩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성장’을 보여주며 현재 유럽에서 저명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클라리네티스트가 된 김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은 크레디아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선생님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크레디아 정재옥 대표님께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공헌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정경화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디토 프로젝트에 보내주신 정재옥 대표님의 무한한 신뢰에 감사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감사 인사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가인 저희의 일은 관객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전달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고, 제가 정말 소중한 간직했던 음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난 날들이, 관객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깃들였길 소망합니다.

저는 디토를 정말 많이 보고싶어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끝은 시작의 또 다른 말

숫자 12와 15. 올해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하는 두 개의 숫자다.
이 숫자의 의미를 찾아 그와 마주했다.

열들, 디토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12년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앙상블 디토와 함께한 시간이다. 첫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내게 가장 소중한 음악을 나누기 위해’ 앙상블 디토를 시작했고, 그의 이런 소망을 담은 실내악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디토 페스티벌로 발전하며 매년 새로운 주제로 찾아왔다. 젊은 연주자와 젊은 관객의 만남. 디토 페스티벌이 클래식 음악계에 가져온 효과는 대단했다. ‘클래식 음악계 아이돌’이란 수식어와 함께 너무 상업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 그것도 관심이 적었던 실내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젊은 관객층에 어필하며 공연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분명한 성과였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2008/2009 예술의전당 유료 관객 1위, 누적 100회를 넘는 국내 투어, 도쿄·오사카·상하이 등으로의 해외 진출이 뒷받침했다.

얼마 전, 음악감독으로 앙상블 디토와 페스티벌을 이끌어 왔던 리처드 용재 오닐이 아쉬운 소식을 전해왔다. 바로 올해가 디토 페스티벌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 그는 그렇게 12년을 함께 해온 디토와 이별을 앞두고 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디토도 이제 그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룬 것들을 축하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갈 시간입니다.”

디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의 표정은 덩덤했다.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디토가 이루었던 성과와 이를 통해 얻었던 경험에 더 무게를 두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앙상블 디토를 시작한 200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며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시작 당시만해도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동안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은 물론 실내악 음악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한 배움도 많았고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한국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페스티벌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말처럼 디토 앙상블과 페스티벌은 실내악 음악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출중한 실력에 젊고 멋진 아티스트들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디토 페스티벌의 기획은 10대, 20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대중문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팬덤 문화를 클래식 음

악계로 가져왔다.

“사실 팬덤은 언제나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주로 솔로 연주자를 향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토의 팬덤 현상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이끄는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유명 아티스트에 있습니다. 홍보에 유용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팝 스타의 공연이라면 괜찮겠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작곡가와 그 작품이기 때문이죠. 연주자의 역할은 좋은 음악을 만들어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많은 무대가 잘못된 주인공을 만든다고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음악인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해를 거듭하며 디토 페스티벌에 연주자를 보러오는 관객보다 공연 자체를 즐기러 오는 관객이 점차 많아짐을 느꼈습니다.”

디토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더해갔다. 젊은 신예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한편, 중견 연주자와의 콜라보 무대도 선보였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대중의 인기에 취해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모든 공연이 소중한지만, 중견 연주자들과 만들었던 무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기돈 크레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하며 그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임동혁과의 첫 만남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고, 이후 좋은 친구가 되어 많은 연주를 함께했죠. 일본에서 그와 함께한 연주가 전석 매진됐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를 연주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제 마지막 시즌만이 남았다.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과 고양아람누리물 오가며 열리는 디토 페스티벌의 마지막 주제는 ‘매직 오브 디토(Magic of DITTO)’, 마법 같았던 지난 순간들을 담았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디토 연대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을 기념하며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레퍼토리인 슈만 피아노 오중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이 합류한 피아니스트인 조지 리와 함께죠. 그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많은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 신예로 가는 곳마다 큰 사랑을 받는 연주자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에는 디토의 여정과 기억을 담았습니다. 제목처럼 디토의 하이라이트 음악을 엮어낸 ‘디토 연대기’입니다.”

열다섯, 또 다른 시작

올해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국내 데뷔 15주년이기도 하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첫 번째 무대로 그가 멤버로 있는 에네스 콰르텟이 내한(4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했다.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진정한 스타죠. 테크닉과 음악성,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항상 겸손하며 높은 가치를 향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자면, 저 또한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지난 2016년, 에네스 콰르텟이 나홀로 걸쳐 선보인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는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여섯 번의 공연은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베토벤 전곡 사이클은 제 음악 여정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베토벤이 그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희생 등 다양한 드라마를 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들 또한 즐거웠죠. 콰르텟 멤버들과 종종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음악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게임입니다. 오직 서른 명만 태울 수 있는 배가 있고, 여기에 오른 작곡가와 그들의 음악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태우고 가던 배의 바닥에 물이 새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희생시켜야 하고, 마지막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죠. 이 게임의 끝엔 항상 바흐와 베토벤이 남는데, 제 선택은 대부분 바흐였습니다. 음악에 있어 그는 신과 같은 존재이니깐요. 하지만 베토벤 사이클 이후에는 마지막 선택이 베토벤으로 바뀌었습니다.(웃음)”

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간다.

“제임스와 하는 또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만약 J.S. 바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를 위해 어떤 다섯 작품을 연주하겠는가?’에 답하는 거죠. 모차르트 교향곡 ‘주피터’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스트라빈스키나 쇤베르크, 슈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는 음악에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처럼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음악에 새로운 체계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의 국내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은 계속 이어진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디토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피아니스트 제레미 텐크와의 듀오 무대다.

“제 아주 오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인 제레미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겸비한 음악가입니다.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우십’을 받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의 음악적 해석은 굉장히 다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연주할 때면 다른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번에 함께할 무대에서는 ‘환상곡(Fantasia)’을 주제로 바흐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슈만 ‘세 개의 환상 소곡집’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등을 연주합니다.”

12와 15, 이 숫자를 마주한 그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와 생각해봅니다. 삶을 살아가며 흐름에 따라 흘러보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죠. 도전하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 또한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무대에 오르기 위해 연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삶이 준 선물을 즐기며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 가려 합니다.”

글 | 이미라 기자 <객석> 2019년 6월호 발췌

2019 디토 페스티벌
Magic of DITTO

FESTIVAL SCHEDULE

DATE	TITLE	VENUE
6/14(금) 8PM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환상곡 FANTASIA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19(수) 8PM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디토 연대기 2007-201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28(금) 8PM	디퍼런트 디토 메시앙 그리고 최재혁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페스티벌 일정

TOUR

DATE	TITLE	VENUE
6/11(화) 6/12(수) 6/13(목)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환상곡 FANTASIA	광주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고양아람누리 군포문화예술회관
6/20(목) 6/21(금) 6/22(토)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디토 연대기 2007-2018	용인포은아트홀 부평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2019
DITTO
Festival

Magic of DITTO



2019

DITTO FESTIVAL
디토 페스티벌



비 범 한 조 우

리처드
용재
오닐

제
레
미
텐
크

환상곡

CREDIA

FANTASIA



2019.6.14 FRI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5G

바흐 1685-1750, 독일

J.S. Bach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Chromatische Fantasia und Fuge, BWV903

12'

I. Fantasia 환상곡

II. Fugue 푸가

Piano 제레미 덴크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세 개의 환상소곡집, 작품 73

Drei Fantasiestücke, Op.73

11'

I. Zart und mit Ausdruck 풍부한 표현과 함께 부드럽게

II. Lebhaft, leicht 밝고 생기 넘치게

III. Rasch und mit Feuer 불같이 빠르게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Piano 제레미 덴크

힌데미트 1895-1963, 독일

P. Hindemith

비올라 소나타 바장조, 작품 11-4

Sonata for Viola in F Major, Op.11 No.4

18'

I. Fantasie 판타지

II. Thema mit Variationen 테마와 변주곡

III. Finale 피날레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Piano 제레미 덴크

I N T E R M I S S I O N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이야기 그림책, 작품 113

Marchenbilder for Viola and Piano, Op.113

16'

I. Nicht schnell 빠르지 않게

II. Lebhaft 생동감있게

III. Rasch 빠르게

IV. Langsam, mit melancholischem Ausdruck 느리게 멜랑콜리한 표현으로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Piano 제레미 덴크

클라크 1886-1979, 영국

R. Clarke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Viola and Piano

25'

I. Impetuoso 맹렬히

II. Vivace 아주 빠르게

III. Adagio 느리게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Piano 제레미 덴크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Johann Sebastian Bach
Chromatische Fantasie und
Fuge, BWV903

J. S. 바흐(1685-1750)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는 그의 수많은 건반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흐 전기로 유명한 요한 니콜라우스 포르켈은 “바흐에게 이러한 스타일의 다른 작품이 있는지 매우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이 독특한 환상곡은 유일무이하다.”라고 평했다. 반음계적(반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진행)이며 토카타(매우 빠른 리듬으로 진행되는 건반음악) 스타일이면서도 질풍노도를 연상시키는 아르페지오, 말을 하려는 듯한 장식된 레치타티보, 그리고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자유로운 리듬과 과감한 화음 등, 바흐의 상상력이 집결된 작품이다. 이어지는 푸가 부분 또한 바흐의 높은 수준의 작곡 능력을 보여주며, 라단조와 바장조로 바뀌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등 음악적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곡은 자필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제목과 작곡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신 열여섯 개의 필사본이 그의 작품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중 다섯 개가 바흐 생존 중에 작성되어 작곡 시기와 변화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바흐의 제자였던 요한 토비아스 크랩스의 필사본으로, 여기에는 환상곡 부분만 두 마디 짧게 수록되어있다. 이 악보는 1717년으로 소급된다. 그리고 푸가 부분이 있는 첫 필사본은 1730년경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두 시기 사이에 작곡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음악학자인 발터 지그문트-슐체는 즉흥적인 양식이나 모든 조성을 사용하는 과감한 표현들로부터 분명한 쾨텐 시기의 작품이라고 단정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작곡 시기는 1717~23년 사이로 좁혀진다. 이렇게 3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여전히 생동하고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는 그의 음악으로부터 고전의 숭고한 가치를 새삼 발견하게 된다.

로베르트 슈만
세 개의 환상소곡집, 작품 73

Robert Schumann
Drei Fantasiestücke, Op.73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이 <환상소곡>을 작곡한 1849년은 당시 슈만이 살고 있던 드레스덴에서 혁명이 일어난 해로, 혁명에 가담했던 바그너가 변장을 하고 야반도주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때였다. 하지만 웬지 슈만의 창작력은 이 해에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다. 작품 번호가 붙어있는 곡만 <만프레드 서곡, Op. 115>을 비롯하여 25곡이 1849년에 완성되었는데, 어쩌면 이러한 불안한 기운이 오히려 슈만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본래 ‘야상소곡’(Soiréestücke)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환상소곡집>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다. 그럼에도 슈만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늘 연주회에서는 비올라로 연주된다. 초연도 클라리넷이 아닌, 동갑내기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트와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의 연주로 1852년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다. 슈만은 이 초연이 매우 훌륭했다고 일기장에 적었다. 이듬해에는 하노버에서 왕과 왕비가 참석한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아힘이 연주하기도 했다.

1악장은 노래와 같은 ‘부드럽고 표현적인’ 선율이 휘감는 아름다운 음악이며, ‘쾌활하고 가벼운’ 2악장이 이어진다. 독주악기와 피아노가 선율을 교환하며 대화하는 2악장에서 피아노의 활약이 돋보인다면, 3악장은 ‘불이 붙는 듯한’ 열정으로 독주악기의 활약이 최고조에 이른다.

파울 힌데미트

비올라 소나타 바장조,

작품 11-4

Paul Hindemith

Sonata for Viola in F Major,

Op.11 No.4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운 파울 힌데미트(1895-1963)는 프랑크푸르트 음악원에서 본격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다. 1914년에 그의 스승인 아돌프 레브너가 자신의 사중주단에 힌데미트를 제2바이올린으로 합류시킬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관현악단에서 제1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1917년에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현대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스승의 사중주단을 탈퇴하고 비올리스트로 변신했다. 오늘 연주되는 <비올라 소나타, 작품11-4>(1919)는 그가 비올라로 악기를 바꾼 후 처음 작곡한 비올라 독주곡으로서,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작곡가로서의 힌데미트는 작곡을 수공예와 같은 장인의 기술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 등의 감정을 음악의 주제로 사용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한 묘사를 거부하면서 반당만을 선언하고,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절대음악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다. 이러한 반당만적 성향은 감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거칠고 표현적인 사운드를 요구했으며, 절대음악적 성향은 형식미의 추구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신고전주의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불협화음의 사용과 불명확한 조성도 반당만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그는 쇤베르크처럼 으뜸음을 실종시킨 무조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으뜸음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화음에 비화성음이 추가되기도 하고, 반음 차이의 두 화음을 동시에 소리 내는 등의 절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화성은 복잡성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곡가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며, 오히려 타악적인 리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그의 첫 비올라 소나타는 이러한 특징들의 출발점으로, 힌데미트는 이 곡으로 비올리스트이자 작곡가로 인정받았다.

1악장 ‘환상곡’은 3분 정도의 짧은 길이로, 41마디 안에 열 번이나 조성을 바꾸는 등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얼거릿듯 빠른 움직임으로 즉흥연주와 같은 효과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

정적이면서 에로틱한 선율을 중심으로 안정되어있다. 2악장은 보다 감각적이고 민속적이기도 한 유연한 주제가 등장한 후, 네 개의 변주곡이 이어진다. 변주곡에서는 마디마다 박자표시를 할 정도로 변화가 심한 박자와 자유로운 전조,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거친 표현으로 혼돈의 회오리에 빠져든다. 3악장은 2악장에서 제시한 주제에 의한 세 개의 변주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힌데미트는 “악장 사이에 쉼 없이 연주되어야 한다. 특히 2, 3악장은 청중이 피날레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마지막 악장은 단순히 변주곡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체가 서주와 변주곡의 구성처럼 들리도록 의도했다. 3악장의 에피소드와 변주곡을 두 개의 주제로 간주하면 소나타 형식과도 유사하다.

로베르트 슈만

이야기 그림책, 작품 113

Robert Schumann

Märchenbilder, Op.113

슈만이 1851년 3월에 작곡한 <이야기 그림책>은 낭만시대의 흔치 않은 오리지널 비올라 레퍼토리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곡이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작곡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1812년과 1814년에 출판된 그림(Grimm)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Kinder- und Hausmärchen)와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슈만은 호프만의 기괴한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심지어 혹자는 첫 두 악장은 라퐁젤의 이야기이고, 3악장은 동화에 나오는 심술꾼은 요정 ‘룸펠슈틸 츠헨’(Rumpelstilzchen)의 춤이며, 마지막 4악장은 잠든 숲속의 공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혹은 상상의 나래를 펴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기 바란다.

1악장은 비올라의 서정적이고 애수 어린 선율이 곡을 이끌어가며, 피아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2악장은 부정 리듬과 삼연음 리듬으로 유쾌하면서도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3악장은 빠르고 거칠게 진행되는 선율과 호흡이 긴 선율이 마치 서로 쫓고 쫓기듯 대등하게 진행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잠시 긴장을 풀기도 한다. 마지막 4악장은 느린 속도로 차분하고 여유 있게 진행한다. 주요 선율이 명확하지 않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레베카 클라크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Rebecca Clarke

Sonata for Viola and Piano

영국의 작곡가 레베카 클라크(1886-1979)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런던 왕립음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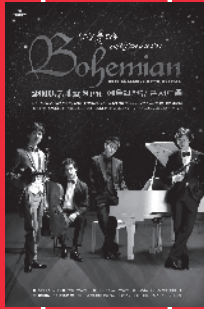
에서 찰스 스펀포드로부터 작곡을 배웠다. 스펀포드는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본 윌리엄스, 홀스트, 브릿지 등을 가르쳤던 영국 최고의 선생이었다. 클라크는 스펀포드의 권유로 비올라로 전향하여 비올리스트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거의 할 수 없었다. 작곡은 남성의 영역으로서 여성에게는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앤서니 트렌트’(Anthony Trent)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앤서니’는 클라크가 좋아하던 이름이었고, ‘트렌트’는 지도에서 눈에 띈 ‘트렌트 강’에서 가져왔다. 이 이름은 1919년에 <비올라 소나타>를 쿨리지 작곡 콩쿠르에 제출했을 때에도 사용되었다. 콩쿠르에는 73명의 작곡가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여섯 명의 심사위원이 최종 두 곡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자인 엘리자베스 스프라그 쿨리지는 이를 보다 못해 작품에 봉해져있던 이름을 떼어내고, 익숙한 이름인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비올라 모음곡>을 우승으로, 낯선 이름인 트렌트의 <비올라 소나타>를 2등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트렌트의 정체를 궁금해 했고, 클라크는 곧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의 소나타는 ‘성공할 조짐을 가진’ 작품으로 연주되었고 출판되었다. 하지만 클라크와 그녀의 작품들은 곧 잊히고 말았다. 그러다 1976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90세를 맞은 그녀의 음악을 집중 조명하면서 <비올라 소나타>가 재발견되었고, 가장 자주 연주되는 비올라 소나타로 등극함으로써 그 ‘조짐’은 약 60년 만에 성공의 꽃을 피웠다.

클라크의 <비올라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드뷔시의 후기 소나타를 연상시킨다. 다소 몽환적이기도 한 분위기는 종종 얼굴을 내미는 영국의 토속적 향취와 조화를 이루어 어색하거나 억지스럽지 않으며,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1악장은 자유롭고 유연한 선율이 인상적이며, 2악장은 짧은 스케르초로서 경쾌하면서도 섬세하다. 마지막 3악장은 느린 악장으로서 곡의 절반을 차지한다. 진지한 비올라의 선율과 물결과 같이 움직이는 피아노 반주가 여러분을 환상적인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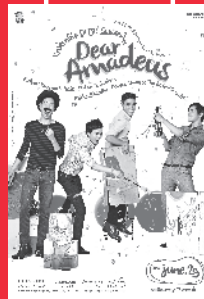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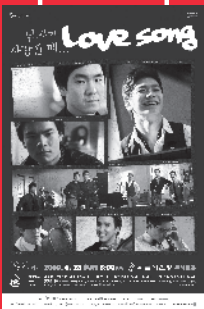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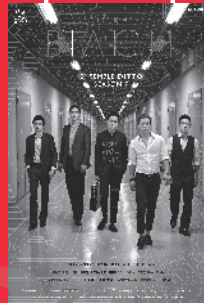
디토 연대기



DITTO CHRON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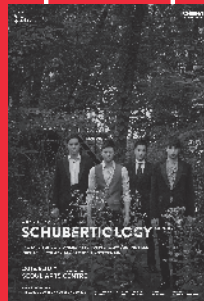


ENSEMBLE DITTO



비올라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노 조지 리
첼로 제임스 김
바이올린 스테판 피 제카브
바이올린 다니엘 정
바이올린 유치연 형
클라리넷 김한

www.dittofest.com



2019.6.19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피아노 오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30'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I. Allegro brillante 빠르고 화려하게

II. In modo d'una marcia: un poco largamente - Agitato 행진곡 풍으로 다소 느리게 - 흥분하여 빠르게

III. Scherzo: Molto vivace 스케르초: 매우 활기차게

IV. Allegro ma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아니하게

Violin 스테판 피 채키브, 유치엔 첵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Cello 제임스 김 Piano 조지 리

I N T E R M I S S I O N

모차르트 1756-1791, 오스트리아

W.A. Mozart

현악삼중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내림마장조 중 1악장

6'

Divertimento for string trio in Eb Major, K.563 1st mvt.

I. Allegro 경쾌하게

Violin 다니엘 정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Cello 제임스 김

모차르트 1756-1791, 오스트리아

W.A. Mozart

클라리넷 오중주 가장조 중 4악장

8'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4th mvt.

IV. Allegretto con variazioni 변주곡 풍으로 조금 빠르게

Violin 유치엔 첵, 다니엘 정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Cello 제임스 김 Clarinet 김한

드보르자크 1841-1904, 체코

A. Dvořak

피아노 오중주 2번 가장조, 작품 81 중 2악장

16'

Piano Quintet No.2 in A Major, Op.81 2nd mvt.

II. Dumka: Andante con moto 둠카: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Violin 다니엘 정, 스테판 피 채키브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Cello 제임스 김 Piano 조지 리

브람스 1833-1897, 독일

J. Brahms

피아노 사중주 1번 사단조, 작품 25 중 4악장

11'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25 4th mvt.

IV. Rondo alla zingarese: Presto 집시풍의 론도: 빠르게

Violin 유치엔 첵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Cello 제임스 김 Piano 조지 리

공연 중 음반 제작을 위한 실황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관객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오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Robert Schumann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현과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라면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의 편성이 일반적이었다. 슈베르트가 <송어 오중주>(1819)를 이러한 편성으로 작곡한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피아노 오중주’라고 하면 피아노와 현악사중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을 가져온 작품이 바로 슈만(1810-1856)의 <피아노 오중주>이다. 당시 피아노와 현악사중주의 결합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두세크와 보케리니 등 극소수의 작곡가만이 이러한 편성의 작품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래서 슈만이 현악사중주에 피아노를 더한 것은 도전적인 시도였다.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부인인 클라라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까닭에 전체적으로 피아노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현악사중주와 대립하고 화합하는 구도로 진행되어 균형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이미 실내악 장르로 확고히 자리 잡은 현악사중주를 뛰어넘는 극적 표현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곡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음악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한 것도 큰 매력이다.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는 실내악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하여 ‘실내악의 해’로 불리는 1842년 9월에 스케치를 시작하여 12월 초에 완성되었다. 12월 6일에 멘델스존의 피아노로 사적인 초연이 이루어졌으며, 공개 초연은 이듬해 1월 8일 라이프치히 게만트하우스에서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 연주로 이루어졌다. 바그너는 이 곡이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극찬했지만, 베를리오즈는 의구심을 표했고, 리스트는 멘델스존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라이프치히스러운” 보수적인 작품이라고 비판하는 등 대체로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클라라는 평생 동안 이 곡을 연주하여 이 곡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했으며, 브람스, 프랑크, 드보르자크 등 많은 후배 작곡가들도 이 편성으로 작곡하여 슈만의 뒤를 이었다.

1악장은 당당하고 힘찬 주제를 제시하며 시작된다.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지만, 이면에 부드럽고 서정적인 면모를 담고 있다. 느린 2악장은 특이하게도 행진곡 스타일로 지시되어있다. 그런데 리듬은 부점으로 되어있어, 마치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며 후퇴하는 패잔병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긴 호흡을 가진 서정적인 주제와 폭풍같이 빠른 리듬으로 몰아치는 주제가 추가되어 론도 형식으로 진행된다. 3악장은 스케르초로, 일반적인 A-B(트리오)-A의 형식이 아닌, A-B(트리오I)-A-C(트리오II)-A로 확장되어있다. A부분은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음계 연주가 인상적이며, 트리오I은 대조적으로 편안하고 아늑하다. 반면에 트리오II는 빠르게 휘몰아치며, 집시 음악의 영향이 엿보인다. 마지막 4악장은 다양한 주제가 론도 형식으로 진행하며, 피아노와 현의 극적인 대화가 펼쳐진다. 두터운 화음 진행 후에 등장하는 코다 부분에서는 1악장의 주제를 푸가로 화려하게 연주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현악삼중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내림마장조 중 1악장

Wolfgang Amadeus Mozart
Divertimento for string trio in
Eb Major, K.563 1st mvt.

18세기 후반 고전 시대에는 유독 이 시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디베르티멘토’라는 장르가 있었다. 이탈리아어로 ‘오락’이라는 뜻이며, ‘희유곡’(嬉遊曲)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당시 복잡하고 진지한 음악보다는 여유롭고 유쾌한 음악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벼운 실내악 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는데, ‘디베르티멘토’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곡들에 붙여졌다.

모차르트(1756-1791)의 작품목록에서도 디베르티멘토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목록에서 유독 보이는 ‘세레나데’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즐기기에 적합한 음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기존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이나 편성 등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 <디베르티멘토, K.563>(1788)도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현악삼중주 편성으로 작곡되었으며, 여섯 악장의 모음곡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대부분이 1770년대에 집중되어있는데 반해, 이 곡은 이와 동떨어진 만년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때는 이미 모차르트의 마지막 세 개의 교향곡이 마무리되었고, 27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26번까지 완성된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 곡의 완속미는 다른 디베르티멘토와는 사뭇 다르며, 격조 높은 진지함을 갖추고 있다. 전체 길이도 무려 45분 정도로 독보적이다. 완성은 9월 17일 빈에서 이루어졌으며, 독일 연주 여행 중이었던 이듬해 4월 13일 드레스덴에서 초연되었다. 모차르트는 이 초연에서 직접 비올라를 연주했다. 오늘날 여섯 악장 중 1악장이 연주된다. 이 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우아하고 편안한 제1주제와 무게감을 갖고 진지함을 더하는 제2주제가 제시된 후, 발전부에서 재등장하여 보다 다양한 표정으로 발전하며, 마지막에 재현부로서 두 주제를 연주하고 마무리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가장조 중
4악장

Wolfgang Amadeus Mozart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4th mvt.

클라리넷이 콘서트 무대에 등장한 것은 18세기가 되어서였으며, 18세기 중엽 만하임 악파의 리더였던 안 스타미츠에 의해 관현악에 정식으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클라리넷이 보급되고 유능한 연주자가 배출되면서 모차르트(1756-1791)는 <교향곡 31번 ‘파리’>(1778)부터 클라리넷을 교향곡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이 <교향곡 99번>(1793)에서야 클라리넷을 처음 사용한 것을 생각하면, 모차르트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음악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차르트는 클라리넷을 위한 명곡을 작곡한 첫 작곡가이기도 한데, 그 곡이 바로 <클라리넷 오중주>(1789)이다. 이 곡은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로 편성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당대 클라리넷의 명연주자이자 모차르트의 친구였던 안톤 슈타틀러의 위촉으로 1789년 9월 29일에 완성되어 그 해 12월 22일에 초연되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모차르트에게 이 곡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 그런데 <클라리넷 오중주>에서 클라리넷은 다른 네 현악기와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주도적이지 않으며, 앙상블의 일원에 충실한 편이다. 슈타틀러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모차르트에게 협주곡을 위촉했고, 모차르트는 클라리넷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걸작 <클라리넷 협주곡>(1791)을 작곡하게 된다. 오늘 연주되는 <클라리넷 오중주>의 마지막 4악장은 변주곡 형식으로, 춤곡 풍의 경쾌한 주제가 제시된 후 여섯 개의 변주가 이어진다.

안토닌 드보르자크

피아노 오중주 2번 가장조,

작품 81 중 2악장

Antonín Dvořák

Piano Quintet No.2 in

A Major, Op.81 2nd mvt.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1841-1904)는 민족주의 작곡가로 인정받으면서 작곡가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비올리스트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던 중 1877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작곡가들을 위해 오스트리아가 마련한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의 주선으로 짐로크에서 <슬라브 무곡 1권>(1878)을 출판하면서, 국제적인 명성과 부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생에서의 큰 전환점은 그의 음악에도 반영되어, 이후 민속적인 요소를 사용하며 표정이 밝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이후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다.

작곡가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1887년에 15년 전에 작곡한 <피아노 오중주 1번>(1872)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곡은 드보르자크가 초연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폐기했지만,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다시 모으고는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바그너적인 풍부한 화음과 중후하고 극적인 표현 등 독일 낭만의 영향을 많이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만족스러운 수정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수정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덕분에 이 곡의 악보를 오늘날 출판하여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드보르자크는 대신에 8월 18일에 비소카의 별장에서 시작하여 10월 8일까지 새로운 <피아노 오중주 2번>을 썼으며, 1888년 1월 8일에 프라하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곡이 1번과 같은 가장조로

작곡된 것을 보면, 풍부한 화음이나 낭만주의적인 표현 등이 1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볍고 투명한 앙상블과 보헤미아의 민속적인 특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이 곡은 드보르자크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으로 연주되고 있으며, 피아노 오중주곡으로서 손에 꼽는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네 악장 중 오늘 연주되는 2악장은 ‘뚝카’(Dumka)이다. ‘뚝카’란 우크라이나에서 유래한 슬라브 민족의 슬픈 노래를 말한다. 피아노가 도입부를 연주하면 비올라가 주요 선율을 제시하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선율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밝은 무곡이 사이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번 사단조,
작품 25 중 4악장

Johannes Brahms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25 4th mvt.

브람스(1833-1897)는 1854년부터 1857년 사이에 잠시 작곡을 중단한 시기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세계의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삼중주 1번>(1854), 그리고 몇 곡의 가곡을 썼지만, 이 기간에는 피아니스트와 교사, 지휘자로서 바쁜 활동 탓에 펜을 들 시간이 부족했고, 음표를 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완성할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활동은 생계 때문으로, 아마추어 여성합창단을 3년간 지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람스는 작곡가로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855년에 클라라 슈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작곡을 어떻게 하고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쓰기도 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피아노 협주곡 1번>(1858)이었다. 브람스는 이 곡을 “화려하고 결정적”이라고 여겼지만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쓰라린 경험으로 작곡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알게 된 테트몰트 궁정관현악단의 악장인 아돌프 바르케르를 위해 실내악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곧 마무리 되었다. <현악중주 1번>(1860)과 두 곡의 피아노 사중주곡(1861)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사중주 두 곡 중 열정적이고 극적인 <피아노 사중주 1번>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오늘 연주되는 <피아노 사중주 1번>의 4악장은 헝가리 무곡을 연상시키는 집시 풍의 강렬한 민속무곡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피아노가 무궁동 스타일로 주도적으로 빠르게 연주하며, 다시 민속 무곡이 등장한다. 그리고 밝은 팡파르가 분위기를 전환시켜보지만, 다시 서정적으로 변화된다. 그러다 피아노의 무궁동으로 심기일전한 후 밝은 팡파르가 재등장하고 다시 서정적으로 누그러든다. 그리고 마지막은 속도를 한껏 올린 민속무곡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몇 개의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번갈아 재등장하는 형식을 ‘론도’라고 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different Ditto

messiaen | jae hyuck choi

CREZIA

디퍼런트 디토

리처드 용재 오닐 · 스테판 피 재키브 · 제임스 김 · 김한 · 일리아 아쉬코프스키 ·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19.6.28 FRI 8 PM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최재혁 1994., 대한민국

Jaehyuck Choi

셀프 인 마인드 1

Self in Mind 1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

5'

최재혁 1994., 대한민국

Jaehyuck Choi

셀프 인 마인드 3

Self in Mind 3

Cello 제임스 김

5'

최재혁 1994., 대한민국

Jaehyuck Choi

앙상블을 위한 빛의 파편

Dust of Light for Ensemble

DITTO Orchestra 디토 오케스트라 Conductor 이규서

12'

I N T E R M I S S I O N

메시앙 1908-1992., 프랑스

O. Messiaen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50'

- I. Liturgie de cristal
수정의 예배
- II. Vocalise,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보칼리제
- III. Abîme des oiseaux
새의 심연
- IV. Intermède
간주곡
- V. Louange à l'Éternité de Jésus
예수의 영원성에 관한 찬가
- VI. Danse de la fureur, pour les sept trompettes
일곱 개의 트럼펫을 위한 분노의 춤
- VII. Fouillis d'arcs-en-ciel,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무지개의 혼란
- VIII. Louange à l'Immortalité de Jésus
예수의 불멸성에 관한 찬가

Violin 스테판 피 재키브 Cello 제임스 김 Clarinet 김한 Piano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최재혁
셀프 인 마인드 1

Jaehyuck Choi
Self in Mind 1

Self in Mind 는 2018년부터 시작된 독주곡들의 연작인데, 각각의 악기를 초상하듯 써내려가는 것이 이 연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악기의 초상은 나라는 작곡가의 주관적인 개념이다.)

1번은 2018 메뉴힌 콩쿨의 위촉작으로, 주니어 부문 파이널리스트들에 의해 제네바 빅토리아 홀에서 초연됐다. 본래에는 바이올린 독주를 위해 작곡됐지만 이번에 리처드 용재 오닐의 연주를 위해 특별히 비올라 버전을 만들었다. 용재 오닐의 비올라 버전 세계 초연이다. 음들이 공기를 품은 채 속삭인다. 수채화에 물을 더 머금게 한게 특징이다.

최재혁
셀프 인 마인드 3

Jaehyuck Choi
Self in Mind 3

3번은 첼로 독주곡이다. 줄리아드 음악원 친구들인 Issei Herr, 그리고 제임스 김을 위해 썼다. 1번과 2번과는 다른 미학적 관점에서 작곡된 곡으로 못생긴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을 하며 작곡한 곡이다. 위의 두 곡들 보다 에너지 흐름의 밀도가 높은게 특징이다.

최재혁
양상불을 위한 빛의 파편

Jaehyuck Choi
Dust of Light for Ensemble

뉴욕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갤러리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갤러리들에 걸린 작품들을 난 작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아니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감상한다. 저마다 다른 미학관들이 깃들여져 있고,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화폭 안의 색채가 현란하게, 또는 우아하게 춤을 추기도 한다. 그렇게 뉴욕의 거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났고 다양한 미학적 이상을 마주하게 됐다. 대부분의 그림들이 나에게 아름답게 다가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쁘다"라고 할 만한 그림도, 우리가 "못생겼다,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그림도 나에게겐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Dust of Light. 빛의 파편, 또는 빛의 먼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곡은 기존의 나에게 절대적 아름다움이었던 미학관 - 영원성과 불멸성: 시간을 다루는 소리예술에서 실질적으로 영원한 어떤것을

이뤄내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형식에는 환상적인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특수성이 생겨나고 그 특수적 공간에서 나의 소리를 가진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만 같은 착각은 만들 수 있다. 이 마법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면 현실의 시간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소원하며 - 과의 작별을 고향과 함께 다른 소리에 대한 탐구의 여정이 시작된 녹턴 시리즈와 셀프 인 마인드 시리즈의 친구로 탄생하게 된 곡이다. 셀프 인 마인드 1번, 2번, 그리고 3번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불러야하나 했지만 셀프 인 마인드는 독주 연작이다. 이 곡은 앙상블 곡이므로 다른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은 곡이 담고 있는 소리들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 곡이 담고 있는 소리들은 나의 기존의 미학관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아니, 넓어졌다고 해야할까? 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게 아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묻는다. 아름다움은 무엇이냐고.

음악이라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음악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바란다. 마치 무언가를 얻어 집에 가는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이다. 그 무언가가 대부분의 경우 "감동"이라는 기념품을 뜻한다. 그 기념품은 아마도 감정적인 울림을 뜻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감동이라는 것은 감정적이어야 하는게 아니지 않나? 사람들은 그러나 왜 감정적인 울림이 있어야 감동이라고 하는걸까. 음악, 그러니까 창작품이나 연주의 해석들은 때문에 자극적으로 변한다; 모든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욕망때문에. 음악은 감동을 주기위한, 받기위한 도구가 아니다. 한 사람의 철학과 생각, 어떠한 것에 대한 표현이 깃들여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이지 않나?

나는 이 곡에서 하나의 작은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에너지들과 합쳐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에너지들만의 갈등, 꼬임, 또는 그 흐름들의 폭발 등을 소리로 표현하고자 했다. 소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화성학에서 주는 방향성으로 흐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소리 그 자체의 밀도와 채도 등의 것들이 소리를 밀어내기도, 끌어당기기도 한다. 소리가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은 이렇게 휘황찬란하다. 잠깐만, 기존의 화성학도 같은 에너지를 뿜고 있지 않나? 나는 도저히 옛날음악과 현재의 음악의 다른 점을 모르겠다.

자, 소리의 에너지와 함께 그 소리들이 안내할 환상의 세계로 빨려들어가 보자. 감정적인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적인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다. 울림이라는 것이 이유가 필요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울릴 수도. 그것이 음악이라는, 소리라는 것이 가진 힘 아닐까.

글 | 최재혁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Olivier Messiaen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1908-1992)은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의무병으로 참전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독일과 폴란드 국경 남쪽에 위치한 괴를리츠 동쪽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괴를리츠는 전쟁 후 반이 나뉘어 동쪽은 폴란드의 즈고르젤레츠가 되었다.) 이곳에서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을 만나게 된 메시앙은 처음에는 이 셋을 위해 곡을 쓰려고 했으나, 곧 자신을 포함하여 사중주곡으로 완성했다. 초연은 1941년 1월 포로수용소에서 열렸다.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첼로에는 가장 저음을 내는 C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곡에서는 C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중주곡은 메시앙 초기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36세 때인 1944년에 자신의 음악에 대해 설명한 ‘나의 음악 언어의 기술’(Technique de mon langage musical)에 이 곡이 예시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곡이 자주 연주되었던 것은, 메시앙의 실내악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작품이 오로지 이 곡 하나뿐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면 이 작품이라도 남겨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메시앙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많은 곡들이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 곡의 제목이나 세세한 부제를 통해 그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의 서문에도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절이 적혀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앙은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상징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 세 개의 성부를 사용하거나 전체 음악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사중주곡의 ‘여덟’ 악장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과 관계가 있다. ‘완전’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말의 역사는 일곱 악장으로 완성된다. 일곱 악장은 4악장의 ‘간주곡’을 중심으로 1~3악장은 하늘에서의 사건, 5~7악장은

지상에서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종말 이후의 영원한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이후의 세상을 상징한다.

첫 악장인 ‘수정의 예배’에서 메시앙은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이 노래하는 새소리와 높은 음역의 하모닉스로 연주하는 첼로의 오스티나토, 선법(mode: 음계의 일종으로, 메시앙은 자신만의 모드를 만들어 사용했다.)이 만드는 피아노의 화사한 화음 등. 이어지는 2악장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보칼리제’와 클라리넷 독주인 3악장 ‘새의 심연’에서도 새의 노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전반부가 하늘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4악장 ‘간주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스케르초와 유사하며, 급하게 연주된다. 그리고 첼리스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악장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가’가 이어진다. 이 사중주곡에 포함된 5악장과 8악장의 두 개의 극도로 느린 찬가(louange)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것인데, 종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5악장은 종말의 전야를, 8악장은 영원한 안식을 노래한다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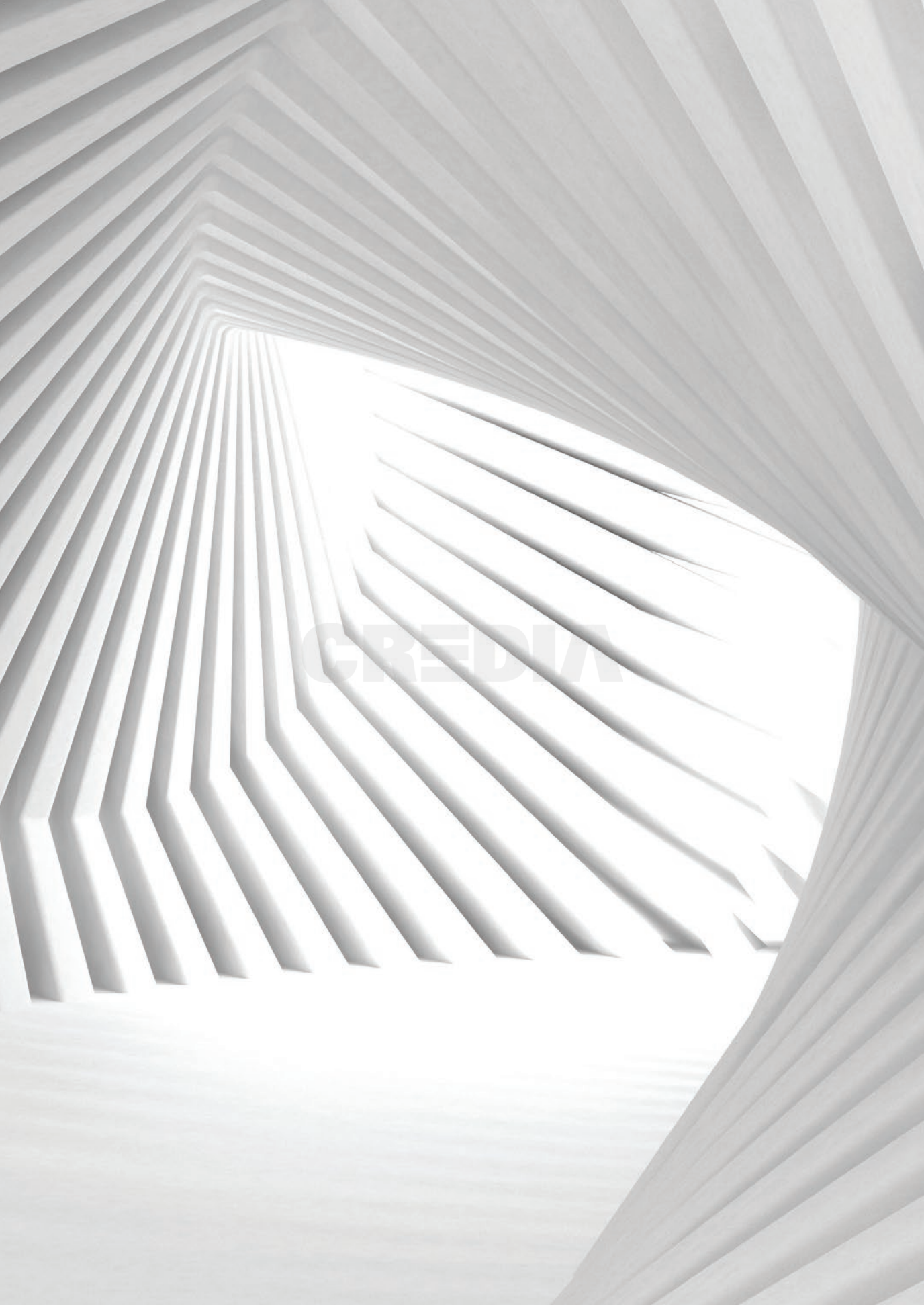
6악장 ‘일곱 개의 트럼펫을 위한 분노의 춤’은 새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지상에서의 종말 사건을 그린다. 이 악장은 직접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그린 것인데, 천사의 나팔소리로서 전쟁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신학적 견해가 녹아있다. 하지만 종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대홍수 후에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지개와 같이, 메시앙은 7악장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무지개의 혼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의 희망과 안식을 노래한다. 이 안식은 8악장 ‘예수의 불멸성에 대한 찬가’로 이어지며, 그 희망은 예수의 신비로부터 온다는 메시지로 곡을 마무리 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2019
DITTO
Festival

Magic of DITTO



CREDIA

Timeless DITTO

3부작 #응답하라디토

마지막 디토 페스티벌을 앞두고 기획자, 기자와 평론가, 그리고 음악감독이었던 용재 오닐이 지난 12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백만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변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맺음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 아래 내용은 팟캐스트 'Timeless DITTO'에서 발췌, 요약한 것으로 전체 방송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내 '디토 클래식'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용재 오닐의 인터뷰 전체 영상은 credia.tv에서 한글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기획자가 말하는 디토

진행: 구름처럼 PD (from 팟캐스트 '술술클래식') | 출연: 원더우먼 (디토 페스티벌 프로듀서), 인터스텔라

구름) 마무리하는 소감, 어떠신지?

원) 시원섭섭! 지금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다. 처음에는 드디어 여름에 해방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6월을 앞두고 이것저것 꺼내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구름) 디토란 어떤 의미인지?

원) 저의 청춘. 물론 청춘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30대의 10년을 올린했던 프로젝트다. 도전에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인) 갓 막내에서 벗어났을 때 디토에 합류해서 테크닉적으로 많이 배웠고, 사람하고 많이 부대껴야 하므로 그런 관계에서도 많이 배웠다. 혹독했지만 한번 겪고 나니 얻는 것이 있다.

구름)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인) 마지막 공연 사인회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와서, 다 같이 만세! 외쳤던 순간

구름) 가장 짜증났고 눈물이 나도록 힘들었던 순간은?

원) 사실 너무 많지만... (웃음) 무엇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게 좋았다. 처음 연습을 시작해서, 무대에 올라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주는 잘했고, 마지막에 관객이 좋아하는 순간을 객석에서 지켜봤을 때 짜릿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나에게 주어질까? 라는 아쉬움은 있다. 외국 나갔을 때 가장 어렵기도 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항상 사고가 있었기에 그런 순간이 힘들었다.

인) 저는 매년 5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아주 힘들었다. 페스티벌을 앞둔 때라 물리적으로 일의 양이 정말 많았다. 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모두 회사에 있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는 일의

양을 보고 ‘아...’ 했었다. 커뮤니케이션할 연주자도 많고, 다뤄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원) 회사에서 먹고 자고 디토 귀신으로 살았다!

구름)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인) 상하이에 혼자 갔을 때, 그 해에 기돈 크레머와 디토가 함께 연주하는 디토 옥토버페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디토를 거쳐 간 스타 연주자를 다 모은 상태였다. 그 팀이 그대로 상하이에서 공연하는 거였는데, 현지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예정과는 달라서 살짝 멘붕 상태였다. 게다가, 당시 10주년을 기념하여 디토를 스케치하던 영상팀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럴 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연주자도 영상팀도 온전히 나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어렵더라.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호텔에서 밤새 다운로드받아 서울 공연 프로그램북 제작도 했었고.

구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원) 용재 오닐은 너무 당연하다. 짬뽕 속의 앙꼬와 같은 존재이고, 제작과정에 참여해 준 수많은 사람도 잊을 수 없다. 디토라는 플랫폼을 통해 소개했던 연주자도 잊을 수 없다. 그래도 저희 정예 멤버 - 스테판 재키브, 지용, 마이클 니콜라스, 용재 오닐은 뜨거웠던 순간이 많아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디토를 시작할 당시에는 곡에 따라 연주자를 모으는다는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서로 맞는 사람끼리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더라. 관객 반응도 달랐고. 생각하지 못한 플랜이었지만, 이 정예 멤버는 못 잊을 것 같다.

인) 뻘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객을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매표가 잘 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이 일이 몇 배 힘들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에 매번 반응해 주셨고, 티켓을 사서, 시간을 써서 공연장에 오고, 사인회까지 참여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구름)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원) 예를 들면, 디토의 시그니처 곡으로 알려져 있는 ‘비 로젯(B-Rossette)’. 당시 한국에서 살지 않는 연주자들은 드라마(하얀거탑)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헌데, 당시 피아니스트였던 임동혁 씨가 리허설 때마다 그 곡을 치다가 앙코르 곡으로 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었는데, 디토가 맛깔나게 연주해서 그 곡과 아주 잘 어울렸다. 관객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선사했을 때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것 또한 디토를 통해 배운 것이다.

인) 디토 사인회는 보통 1시간 넘게 진행했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허리도 발도 아프곤 했다. 그럴 때 쪽지에 자기 이름을 적어와 주는 팬들이 정말 고마웠다. 디토가 우리 말 인사는 가능해도 한글 이름을 직접 적기는 쉽지 않았는데 정말 센스 있는 팬이라고 생각! 쪽지나 손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와서 떨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기억에 남는다.

구름) 메이크 오버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원) 처음 시작했을 때, 디토를 인기 있는 팀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부터 시작했다. 사실 클래식 아이돌이라는 말은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기존의 것과는 무조건 달라야 했고, 영화 포스터 같은 비주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거냐는 고민이 많았다. 고민뿐인가. 지금은 많이 바

귀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연주자는 왜 자꾸 나에게 이런걸 시키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어쨌든, 첫해에 나름대로는 다듬어서 올렸다. 그 와중에 송혜교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공연을 봤는데, 공연을 본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 ‘저건 아니잖아요.’라는 직언을 해줬고, 저 또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던 차에 디토를 다듬어 주셨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텐션을 받긴 했는데, 그 ‘꽃미남’ 수식어에 가려진 것이 많아서 아쉬울 때도 있었다. 급기야는 ‘보고’ 잡지에서 연락이 왔다. 굉장한 사이버적인 화보를 찍었고... (웃음). 이렇게 음악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이례적인 일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싫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즐겼던 것 같다.

지용은 숨겨졌던 끼에 놀랐을 정도, 용재는 더 좋아진 케이스, 스티븐도 변화한 케이스다. 1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스테판 피 재키브, 이게 나야! 인거지 (웃음)

구름) 디토가 이렇게 끝나지만 두 사람은 기획자로서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지?

원) 당장은 없다. 하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다. 환경이 바뀌었고, 이 환경과 속도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무엇인가는 할 것이다.

구름)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상극인데

인) 디토에 와서 많이 배웠다. 마지막 인사는 6월에!

원) 인터스텔라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에게 말하고 싶다. 일반적이지 않은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면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제가 주로 던지기 담당이었고 만들어 내라고 하면 그거를 꿰매고 고치고 하는 것이 인터스텔라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일을 조직해 주는 스태프가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 드린다. 그래서 2년 전에 디토 박스를 만들었을 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때까지 디토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의 이름을 넣어 보냈었다. 이런 것이 디토가 남겨준 것 같다. 이쯤 했으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라 세우는 일 빼고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자신감을 얻었다. 우리가 소통을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구름) 2007년에 시작한 일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함께 해온 시간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수 많은 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디토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2

날카롭지만 고마웠던 시선 - 평론가, 기자가 바라본 디토의 지난 12년

진행: 소피 (from 팟캐스트 '술술클래식') | 출연: 노승림 (음악평론가),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기자)

음악계에 디토가 던진 것이 무엇이였을까, 마무리에 대하여

노) 저는 사실 유학 전에 디토를 보고, 중간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다시 디토를 봤다. 전학 갔던 친구가 돌아왔는데, 많이 성숙한 모습에 감동한 느낌이다.

이) 용재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다. 항해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일찍 왔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박수받고 떠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클래식 아이돌, 꽃미남이란 수식어가 많았는데 (언론에서 일조하기도 했는데, 리드랑 주재 뽑기가 편하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실내악 부흥을 이끌었고, 클래식 판을 키웠다는 평이 많았다. 이게 성숙이 아닐까.

노) 양날의 검이었을 것 같다. 디토는 상업성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흡을 파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수입이 필요한 것은 맞으니까. 당시 상업적인 것을 지향하는데 비판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는데, 디토는 성공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도입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음악성이었다. 디토는 마케팅과 음악성이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성공한 케이스다. 사실, 그 사이 디토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음악계가 많이 바뀌었다. 제가 유학 가기 전 음악계는 교수님 위주의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연주회가 많았고, 젊은 연주자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학을 다녀오니 과거 비주류에 속했던 젊은 연주자가 이제 주류가 되어 있었고, 여기 공헌한 것이 바로 디토였다고 생각한다.

소) 객석에 연주자의 관계자, 지인보다 일반, 젊은 관객이 음악이 좋아서 참여하는 것도 좋았고

이) 디토는 ‘클래식 청중을 안내하는 안내서’ 였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포장에 중요하데 디토가 그것을 매우 잘했다. 연주자 매니지먼트 방식이나 사진 작업, 팜플렛, 소개 자료, 기자에게 주는 문서의 레이아웃조차 세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 보다 쉽고, 세련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던 것 같다.

디토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

소) 젊은 관객이 대거 유입되었고, 팬심으로 왔다가 후에 클래식 음악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극장에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매니저도 많았다.

이)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2017년 7월 1일, 정경화 선생님과 슈베르트 ‘송어’를 연주했던 날. 용재 씨가 정경화 선생님께 무릎 꿇고 장미 꽃다발을 주었고, 선생님은 꽃을 한송이씩 뽑아 젊은 연주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기자로서는 안산에서 했던 기자회견을 그렇게 잊을 수가 없다.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가서는 보람이 있었다.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기자로서 보기에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고양에서 하기도 하고.

노)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을 봤다. 에네스 콰르텟의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

소) 이 시리즈를 매진시킨 관객도 엄청나다. 실제로 제임스 에네스도 해외에서도 못한 프로젝트인데 한국에서 성사되어 매우 고맙다고 했었다. 저는 그 공연의 부수적인 프로젝트로 용재 씨와 책 (나와 당신의 베토벤)을 썼었다. 하지만, 연주자가 책 1권을 쓴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돌아다니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라.. 용재 씨가 한국에 왔을 때 붙잡고서 정말 어렵게 글을 냈는데, 막상 책이 나오니 우리 둘 모두에게 아주 감동적이더라. 책에는 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용재 씨 파트에 곡마다 그의 개인적 경험이 녹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음악은 경험이니깐, 우리가 모두 다 다른 경험을 통

해서 음악을 머리에 각인시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기억에 남는 인물

이) 연주자를 선정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정재옥 대표의 특별한 리더십을 꼽고 싶다. 헌신과 인내심이 없었다면 10년 넘게 실내악 위주의 프로젝트를 끌고 오기 힘들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작년에 협연했던 미샤 마이스키. 젊은 아티스트가 거장과 만나 오래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눈 것 같았다. 세 번째는 관객. 특히 디토 청중은 현대무용 관객과 겹친다. 관습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따라간다. 여성 관객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남자 관객이 가장 많은 곳이 디토 공연이기도 하다.

소) 남는 건 음악이고, 남는 건 작곡가였다고도 하고 싶다. 저는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 세 사람을 꼽고 싶다. 특히 실내악에서 차이콥스키의 재발견을 한 것 같다. 연주자는 사라져도, 관객에게 감동과 음악을 남겨주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디토는 단순히 몇 멤버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고도 생각한다.

노) 저는 세 명의 연주자를 꼽았다. 우선 제임스 에네스. 세계적인 명성이 국내로는 잘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베토벤 전곡 연주 후에 그와 한국의 인연이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협연 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한 명은 지용. 가장 색깔이 진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음악 세계와 관점을 관객에게 어필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디토를 마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인물, 리처드 용재 오닐.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연주자였다.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상업적인 면을 놓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예술적이고 학문적인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두 가지 길. 페스티벌 음악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볼 기회를 받았지만, 사실 가장 힘들게 고민했던 사람 역시 용재 오닐이 아니었을까 싶다. 27-28세 때는 보지 못했던 성숙한 발언도 보이고.

이) 저는 비올라 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포용하는 리더십.

소) 멋진 표현이다. 디토는 이렇게 갈등했던 모든 것을 고민 끝에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디토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노) 디토는 한국 공연계에 젊음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젊음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일 수도 있지만, 젊은 연주자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들이 기존 세대가 하던 여러 가지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젊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청중도 젊어졌다. 처음 디토를 듣던 사람들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그들이 음악을 사고하고, 듣는 방식은 계속 젊을 것이다.

이)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크레디아가 특이한 게, 2009년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 그때부터 유튜브를 소통 창구로 활용했던 것 자체가 아주 좋았다. 2010년에 일본도 갔고, 2015년에는 중국에도 갔다. 해외 진출은 K-POP에 맞물리기도 했지만 앞서 시도했던 만큼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다.

아울러서, 되게 용감하다. 끝맺음을 확실히 아는 것과 그만두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되지 않는다. 그냥 관성적으로 하면서 평타를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간에 끝맺음한 것도 굉장히 현명 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소) 시작과 중간, 끝맺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결국 남은 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든다. 연주자, 스태프, 관객, 그리고 평론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프로젝트, 디토의 마무리를 공연장에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 용재가 말하는 디토

진행: Q피디 (from 팟캐스트 'Q피디의 땡큐포더뮤직') | 출연: 리처드 용재 오닐

디토, 어디서도 보기 힘든 프로젝트였는데 어땠나요?

글쎄, 살면서 겪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란 때때로 가장 무모하고 노동집약적이기도 하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행복한 부분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관객이 예술을 즐겼다는 납다른 성과를 얻은 것이고, 아쉬운 점은 이제 연주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관객은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 진정 마법이었죠.

디토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나요?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하지만, 한국어로 말한다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디토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썼는데, 음악과 제 삶에 관한 내용이었고 제목이 '공감'이었어요. 한국어 '공감'이 가장 구체적이죠.

디토를 '공감'이라고 정의한 이유가 뭔가요?

디토에 적당한 단어를 찾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공감이라는 말은 디토의 핵심을 말해줘요. 세 가지 요소 간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데, 음악 / 음악의 매개자인 연주자 / 음악의 수혜자인 연주자와 관객 모두. 제 생각엔, 특히 직업에서 경험하는 건데 순식간에 변하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클래식 음악은 과거 격동의 시기에 쓰였지만, 지금도 그 음악을 다시 듣고 연주하잖아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놀랍도록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는 거죠. 오늘날의 상황이나 유행은 일회성이잖아요. 우리의 삶 또한 언젠가는 끝나고요. 하지만 음악은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디토에 열과 성을 다한 이유예요.

디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을 꼽아주시겠어요? 우선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정경화 선생님과 연주할 때였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선생님

덕분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는 예술가예요. 자신에게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분이셔서 스스로 매우 엄격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무대에 선 선생님 연주에서 보이죠. 선생님과 연주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그럼 가장 슬펐던 때는?

아마도 두 달 후가 아닐까 해요. 무대에 불이 꺼지고, 관객이 공연장을 떠날 때요. 저는 진심으로 관객을 생각하면 아주 슬퍼요. 진심으로 가장 큰 축복은 관객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심각한 예술에도 유머의 순간은 많죠. 특히 동지애인데요, 형제 같은 음악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가 제 삶 전체에서 가장 기쁘고 빛났죠. 2008년에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합류했을 때. 동혁씨의 합류가 커다란 활기를 불어넣어 줬죠. 고된 순회공연 중 낮잠을 청할 유일한 곳이 피아노 아래였는데, 동혁씨가 연습하는 피아노 밑에서 낮잠을 잤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죠.

관객과 교감한 시간이 충분히 즐거웠나요?

공연 예술에는 조금 묘한 면이 있어요. 본래 공연이란 자신을 전부 드러내는데,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거의 매일 나를 보여주잖아요. 아주 묘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실하게 나누는데, 종종 요청에 의하기도 하고 나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면에선 제 인생철학과도 관련 있는데, 이 세상 누구와 마주 앉아도 경청한다면 상대로부터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신과 같은 능력이요.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요.

“음악이 마법 같은 건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공연에 갈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죠.

“언어가 끝난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

디토 후에 다른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저의 마지막 과제는, 다른 꿈이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마다 성공적이면 제 꿈을 이룬 거니까요. 한계를 넘어 올라가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게 음악가의 가혹한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한계란 예측불허의 혼란인데, 연주를 잘못 하거나 악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정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전보다 조금씩 멀리 가는 거예요. 다시 미끄러지기 전까지요. 가능한 많은 곡을 연주하길 바라요.

용재씨는, 디토로 인해 행복했나요?

기돈 크레머, 미샤 마이스키와 연주하면서 행복했어요. 자신의 독특하고 귀한 예술성을 나눠 주셨고, 일생일대의 경험을 선사해 주신 거니까요. 마음속 깊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모두와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에서요. 지난 12년에 대한 멋진 축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 삶이 비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디토 공연을 찾으시는 분들도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디토라는 말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럼요. 패트릭 스웨이지 주연의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셨나요? 영화에서 스웨이지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 영화에서 '디토'란 말이 나와요. 편하게 쓰는 말이었어요. 아주 일상적인 단어로 흔하게 쓰죠. 처음에 디토를 시작했을 때 유명한 첼리스트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냐고요. 전 그가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죠. 이젠 '사랑과 영혼'의 디토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젠 확실한 이름이 됐죠. 많은 사람이 디토를 알아요. 대중에게 알려진 거죠. 일부 계층만 즐기던 문화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으니까요. 그게 아주 기쁘죠. 그래서 디토를 많이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관객이 디토의 음악을 통해 행복했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슬프고 힘든 순간이 또 있겠죠.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힘들 땐 디토의 음악이 떠오를 것 같아요. 디토의 음악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을 거니까요. 우리가 힘들어 할 때마다 삶을 다시 시작할 에너지와 살아갈 이유를 얻어야 하죠.

우리 곁에 있어 줘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 줘서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용재 씨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용재 씨가 사랑하고 용재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어 줘서 감사해요. 디토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용재 씨가 이젠 디토로서 연주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스텝판 재키브가 디토를 떠날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스텝판은 이번에 다시 참여해요) 이 세상에 안녕이란 말은 없다며 아주 진부한 말을 했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전 '너랑은 끝났어' 하며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계속 변하잖아요. 앞으로의 삶에 기대가 크고요. 디토와 함께한 젊은 연주자의 앞날도 기대가 커요. 응원해 온 관객이 이들의 공연을 찾아 주실 거고 필요할 때 음악을 찾으실 거예요.

우리말에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공감' 이상의 말이 없다고 하셨지만, 'karma'나 'relationship'으로는 부족한 우리말이 '인연'이죠. 디토가 우리에게 선사한 게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연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요,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었듯 우리가 앞으로의 용재 씨 삶에 힘이 되길 바라요. 용재 씨에게 힘과 위안이 필요할 때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도요. 팬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용재 씨에게 그런 존재이길 바라요. 디토로 맺어진 인연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 양상블 디토의 연주 영상과 각종 컨텐츠는 유튜브 credia.tv, 팟캐스트 등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ON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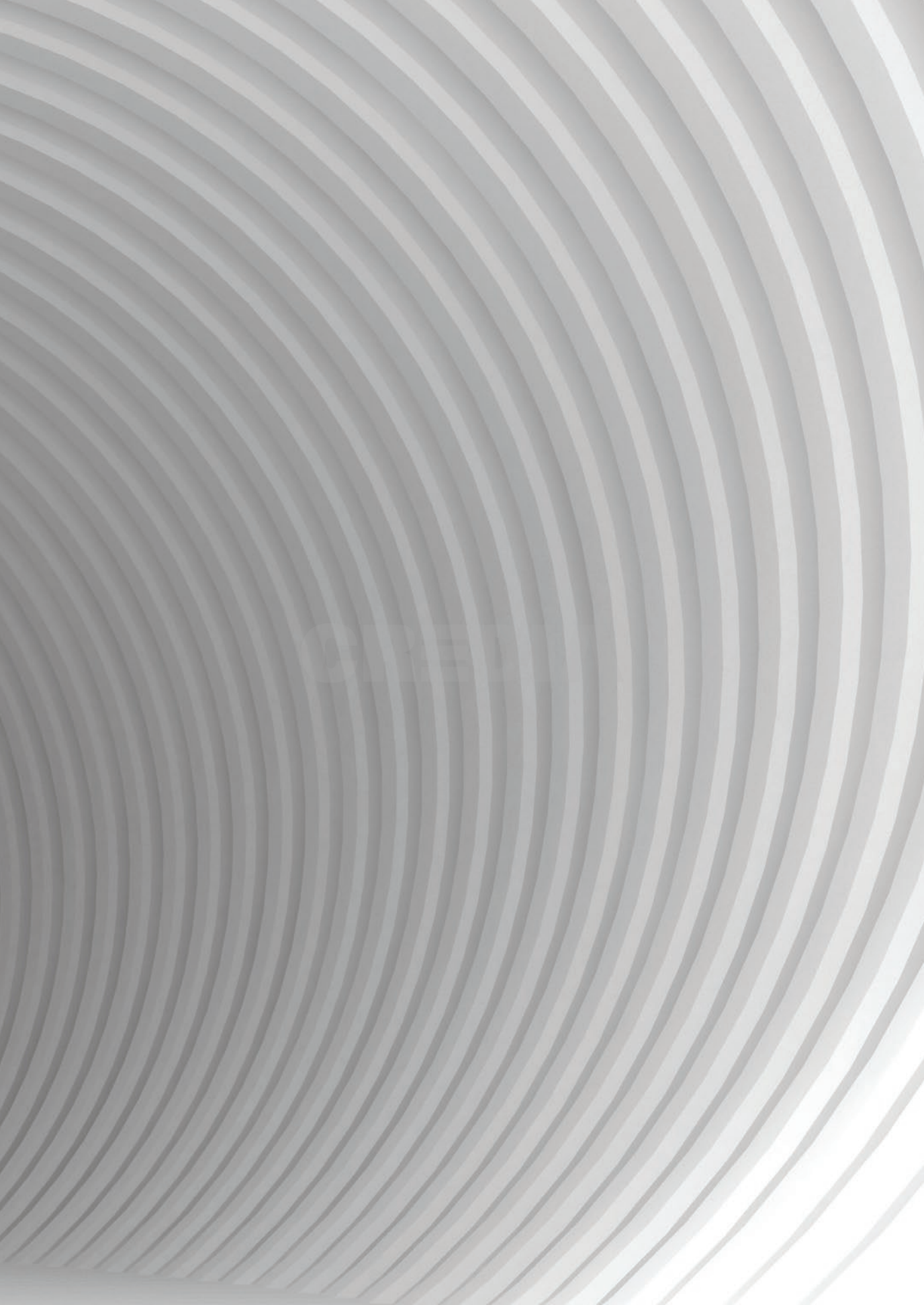
ΠΙΟΤΙΣ





2019
DITTO
Festival

Magic of DITTO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Violist

Richard Yongjae O'Neill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미상과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사회적, 음악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며 젊은 연주자 사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런던 필(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지휘), LA 필(미구엘 하스베도야 지휘), 서울시향(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지휘), KBS교향악단,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세종솔로이스츠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뿐만 아니라 독주자로서 뉴욕 카네기 홀, 에버리 피셔 홀, 케네디 센터와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샬 코르토, 도쿄 오페라시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활발한 독주무대를 펼쳐오고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많은 초청을 받는 용재 오닐은 2008년부터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정식단원으로, 2006년부터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04년부터 2년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유일한 비올리스트였고, 세종솔로이스츠에서는 6년간 비올라 수석과 독주자였다. 또한, 에마누엘 액스, 레온 피셔, 개릭 울슨, 메너헴 프레슬러, 스티븐 이설리스, 에머슨 현악사중주단, 줄리아드 현악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와 연주해 왔다. 말보로, 아스펜, 브리지햄턴, 브루클린, 카잘스, 체임버 뮤직 노스웨스트, 대관령, 라 호야, 일본 열광의 날, 모스틀리 모차르트, 통영 등 다수의 국제 음악제에도 참여해 왔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 뮤직 아티스트로서 2018년까지 10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 총 200,000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눈물>(유니버설 뮤직 코리아)과 <겨울여행>(DG)은 더블 플래티넘을, <미스테리오소>(ARCHIV), <노래>(DG)는 플래티넘을 받았다. 특히 2집 <눈물>은 2006년 클래식과 인터내셔널 팝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특별히 유명하기도 한 용재 오닐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참여한 MBC <안녕?!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큐멘터리에 수차례 출연했고, TV, 라디오, 일간지 등 주요 미디어가

그의 이야기와 음악 활동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그가 이끄는 앙상블 디토와 디토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클래식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 엄청난 숫자의 관객에게 클래식을 소개했다. 용재 오닐은 상업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2010-1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 방문의 해 미소 홍보대사, 유니세프 아우인형 홍보대사,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유니세프 자선음악회에도 출연하였다. 최근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2018년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에세이 <공감>(2009, 중앙북스)과 <나와 당신의 베토벤>(2016, 오픈하우스. 노승립 공저)을 발간했으며, 열정적인 마라토너로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에 참가, 완주하는 등 한국에서 가히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관한 관심도 지대한 그는 세계적으로 큰 집중을 받고 있는 엘리엇 카터, 폴 치하라, 마리오 다비도브스키, 올리버 크누센, 조 콘도, 피터 리버슨, 테아 머스그레이브, 후앙 루오, 데이비드 델 트레디치, 멜린다 와그너, 찰스 우리넨, 존 존 등의 현대 작곡가와 작업해왔다. 2011년에는 뉴욕 92nd Street Y 극장에서 열린 엘리엇 카터의 103번째 생일을 위한 공연에서 카터가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프레드 쉐리, 롤프 슐테을 위해 쓰고 헌정한 현악 삼중주를 세계 초연하였다. 2012년 9월에는 LA에서 후앙 루오의 비올라 협주곡 <In Other Words>을 초연했다. 낙소스, 브리지에서도 그의 연주가 발매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쇤베르크와 베베른이 수록된 낙소스 앨범 리뷰에서 용재의 연주에 관해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연주라고 묘사하였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은 용재 오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마그나 쿵 라우데)를, 줄리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폴 뉴바우어와 도널드 맥아인스를 사사하였다.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았으며, 교육자로도 헌신하여 2007년부터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현재 1727년 마테오 고프릴레르가 제작한 베니스 산 'ex-Trampler'와 가스파로 다 살로 'ex-Iglitzin, the Countess of Flanders'을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

Pianist
Jeremy Denk

제레미 덴크는 미국이 자랑하는 피아니스트들 중 하나이다.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우십(2013)과 최고의 미국 연주자들에게 수여하는 에버리 피셔 상(2014)을 받은 덴크는 최근 미국 예술과학 학술회 회원으로 선출될 만큼 지적인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덴크는 카네기 홀에서 다수의 연주회를 올리며 최근 시카고 심포니, 뉴욕 필, LA 필, 샌프란시스코 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의 투어 연주를 가졌고, 최근 영국 BBC 프롬스 무대에 재차 초청받아 바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2018-19 시즌에는 워싱턴을 시작으로 시애틀, 클리블랜드, 카네기 홀로 대미를 장식할 리사이틀 투어를 펼친다. 토론토 심포니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지휘와 연주를 동시에 하였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전미 투어를 하며, 아틀란타와 콜로라도 심포니,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직접 연주하며 지휘한다. 이어, 덴크는 오랜 파트너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그리고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와 뉴욕, 보스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의 11개의 도시에서 투어를 펼친다.

앞으로 그는 마티아스 괴르네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그리고 스테판 피 재키브와 탕글우드에서 아이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유럽에서도 BBC 심포니 협연 외에, 버밍엄 심포니와의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다. 또한 런던 위그모어 홀 등에서 3년 간의 리사이틀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욤 드 마쇼부터 질 뱅슈아, 제수알도, 슈톡하우젠, 리게티, 필립 글라스 작품을 작업한 <c.1300-c.2000> 앨범이 곧 넘서치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제레미 덴크는 오버린, 인디애나 음악대학, 줄리아드 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다.



© JOON LEE



© MICHAEL WILSON

양상블 디토

Ensemble DITTO

왜 클래식 음악회에는 젊은 관객이 오지 않는 것일까, 그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들이 디토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디토는 스스로 관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과 친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전통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의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들로 이들의 미션을 실행해 나갔다. 그리고 팬들은 매우 뜨겁게 그러한 노력에 보답해 주었다. 2007년 시작으로 지난 12년 동안의 만난 팬들은 일회성 관객이 아닌,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로 디토와 함께하고 있다.

양상블 디토는 데뷔 때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차별화된 프로덕션 제작과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고, 이를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더욱 열광하게 하였다. 드라마 OST 연주, 흥대 앞 클래식 연주회, 게릴라 콘서트, 해외 화보촬영, 다양한 뮤직 비디오와 캠페인 비디오 제작 등 클래식 연주 단체로서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활동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10, 20대,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모이게 하며 2008, 2009년 예술의전당 유료관객 1위를 기록, 매년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양상블 디토는 2010년, 활동 영역을 일본으로 확장했다. 2010년 6월 도쿄국제포럼과 오사카 심포니 홀 공연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펼쳤으며, 일본 데뷔 첫해에 7,000석을 매진시키며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클래식 시장에 당당히 진출, 한국 연주자와 한국 클래식 콘텐츠의 더 큰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한-중-일 문화 서틀 콘서트를 펼쳤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젊은 아티스트가 양상블 디토의 이름으로 모여 펼친 이 공연은 그들의 국제적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이기도 했다. 2011년에는 도쿄 기오이 홀에서 펼쳐진 한일문화교류 공연에 초청받아 문화교류 사절 역할도 소화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대의 클래식 페스티벌, 일본 '열광의 날'에 초청받아 사흘간 공연을 펼쳤다.



“연주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결국 ‘나눈다’는 것이니까”

줄리아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취득, 2006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

링컨 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단원이자 에네스 콰르텟의 비올리스트

런던 필, 로스앤젤레스 필, BBC 심포니, 크레메라타 발티카, 알테 무지크 쾰른,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등과 협연

유니버설 뮤직/DG 아티스트로서 여덟 장의 솔로 앨범과 베스트 앨범 <My Way> 발매

클래식 음악 에세이 <공감>(중앙북스), <나와 당신의 베토벤>(노승림 공저, 오픈하우스) 출간

MBC 대기획 <안녕!! 오케스트라> 참여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Violist

Richard Yongjae O'Neill



“흔치 않은 음악적 자질, 지성과 감성을 연주하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전공, 뉴 잉글랜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취득

2002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

보스톤, 시카고, 클리블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코펜하겐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싱가포르 심포니,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등과 협연
한국 대표문인 故 피천득의 외손자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Violinist
Stefan Pi Jackiw



© SIMON FOWLER

PROFILE

프로필

“뛰어난 테크닉, 컨트롤 감각 그리고 깊이 있는 표현력”

2015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위 수상 후 빠른 속도로 국제적 명성을 얻음
두다멜, 게르기예프, 마이클 틸슨 토마스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와 연주
LA 필, 샌프란시스코 필, 뉴욕 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등과 협연
2018/19 시즌, 런던 필, 몬트리올 심포니, 도쿄 심포니,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과 중국 11개 도시 투어,
미하일 플레트네프 지휘의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와 전미 투어의 협연자로 선정
하버드 대학, 뉴 잉글랜드 음악원을 졸업

피아니스트

조지 리

Pianist
George Li



“클래식 음악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당신에게 정말 특별한 음악이 될 거예요.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커티스 음악원,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취득
2002년부터 파커 콰르텟의 바이올린 1주자를 맡아 파커의 2011 그래미 수상 리드
뉴욕 카네기홀, 빈 무지크페라인, 런던 위그모어홀 등 전 세계의 유서 깊은 극장에서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Violinist

Daniel Chong



PROFILE

프로필

“빛날 준비가 된 비르투오소”

2015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1위없는 2위 수상

사라사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윤이상 콩쿠르 우승

유니버설 뮤직/DG 아티스트

커티스 음악원에서 아이다 카바피안와 아론 로잔드 사사

필라델피아, 뮌헨 오케스트라, 체코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첵

Violinist

Yu-Chien Tseng



“감탄이 나올 만큼 깨끗한 첼로의 음색과 정확성”

2006 데이비드 포퍼 국제 콩쿠르 우승, 2015 윤이상 국제 콩쿠르에서 3위와 특별상
줄리아드 음악원의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 세종 솔로리스트 첼리스트.

보스턴 심포니, 로얄 필, 대구 시향, 코리안 심포니, KBS 교향악단 등과 협연
맨하탄 음대 필립 물러의 제자, 예일 음악대학 석사 학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 학위
삼성문화재단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스트라디바리 소사이어티가 후원하는 1715년 베니스의
마테오 고프릴러 첼로 연주

첼리스트

제임스 김

Cellist

James Kim



“숨소리마저 악기”

2016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

2009 베이징 국제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예원학교, 영국 명문 이튼칼리지와 길드 홀 음악연극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

독일 뉘른베르크 음대에서 자비네 마이어 사사

2018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부수석 임명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Clarinetist

Han Kim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Pianist
Ilya Rashkovskiy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5살 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8살 때 그는 이르쿠스크 교향악단과 첫 연주회를 가졌다. 1993년에서 2000년까지 그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에서 메리 레벤존 교수를 사사하였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하노버의 음악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크라이네프를 사사한 후, 파리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서 알프레드 코르토틀를 사사하였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등상/대중상, 일본, 2012), Citta di Pinerolo 콩쿠르 (이탈리아, 2012), 국제 하엔 콩쿠르 (스페인, 2005), 그리고 홍콩 국제 콩쿠르 (2005)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파리의 롱티보 콩쿠르에서 2위, 브뤼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4위, 텔아비브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피아노 마스터즈에서 3위를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파리 샤틀레 극장, 살 플레엘, 쾰른 필하모닉 홀, 에센 필하모닉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 허바우, 모스크바 음악원 그랜드 홀, 도쿄 산토리 홀과 같은 세계적인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고 있다. 라디오 프랑스 관현악단, 릴 국립 관현악단,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 재팬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교향악단, 몬테비데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고 있다. 또한 라쉬코프스키는 실내악을 매우 사랑하는 음악가로 박지윤, 발레리 소콜로브, 안드레이 이벨로우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와 즐겁게 협연하고, 브리기트 발리스, 오리엔 모레티와 같은 성악가와도 함께 연주하고 있다.

최근 음반은 무소르그스키,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 등 러시아 레퍼토리로 발매되었다(La Musica, 프랑스). 2015년에는 스크리아빈 서거 100주년을 맞아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을 만들었다(NAR, 일본). 차이콥스키의 사계와 C# 단조의 소나타 (Naxos Label-2008), 모차르트, 쇼팽, 리스트와 스크리아빈의 환상곡 (Alpha Omega Music 홍콩 - 2009), 그리고 쇼팽의 에튀드 전곡 (Victor 일본)을 2013년에 발매하였다. 현재 한국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작곡가/지휘자
최재혁

Composer/Conductor
Jaehyuck Choi



© ESTRO

한국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최재혁은 2017년 제네바 국제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1위를 거머쥐며 세계 클래식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2018년 프랑스 Festival du Périgord Noir 위촉작곡가 그리고 메뉴힌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의 위촉 작곡가로 선정되며 그의 작곡가로서의 전도유망함은 빠른 속도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작곡뿐 아니라 지휘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여름에는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슈톡하우젠의 3 개의 오케스트라와 3명의 지휘자를 위한 <GRUPPEN> 을 사이먼 래틀 경, 던칸 와드와 함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제무대에 데뷔를 하였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수상자 갈라 콘서트의 기획과 지휘를 맡았다. 갈라 콘서트에서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Self in Mind II for Solo Flute (2018)을 세계 초연하였고, 한국에서의 부천 필하모닉 지휘자로서 정식 데뷔 무대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0년에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바흐 브란덴부르크 전곡 지휘, 2021년에 제네바 콩쿠르 1위 곡인 클라리넷 협주곡 녹턴 3번을 한국 초연하며 유명 현대 음악 앙상블인 앙탱콩탕포랑과 그의 클라리넷 협주곡 앙상블 버전을 프랑스에서 초연한다.

그는 유명 음반 레이블 유니버설뮤직코리아, 머큐리 클래식과 손을 잡고 제네바 콩쿠르에서 1위 수상작품인 클라리넷 협주곡 녹턴 3번을 음원으로 정식 발매하고, 이어 Self-Portraits 시리즈를 Neu Records를 통해 발매하였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향 진은숙 작곡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며 진은숙, Péter Eötvös, Tristan Murail, York Hoeller, Pascal Dusapin 을 사사하였다. 2013년 앙상블 앙탱콩탕포랑 소속의 Péter Eötvös 사사 하에 프랑스 Royaumont & Eötvös Foundation 현대 음악 앙상블 전문 지휘자 과정, 2014년 프랑스 IRCAM 현대음악 앙상블 전문 지휘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5년 Grangfenegg Festival의 Ink Still Wet 작곡가 겸 지휘자 마스터클래스 참가, 2016년 성시연 지휘자의 경기필하모닉 지휘 마스터 클래스, 2017년 김희라 교수의 경기필하모닉 작곡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하였다. 그는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를 취득하였고, 석사 졸업예정으로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다.

지휘자
이규서

Conductor
Gyu Seo Lee



© SHIN-JOONG KIM

지휘자 이규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지휘와 작곡을 공부했다. 22세에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기획한 차세대 지휘자로 선정되어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래 국내외의 주요 악단들을 성공적으로 지휘해오고 있다. 세련된 바톤 테크닉과 원숙한 음악성, 기복 없이 넓은 레퍼토리까지 갖춘 그는 단연 다음 세대를 대표할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4년부터 정통 실내관현악단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OES)을 조직하여 중앙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도 이 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수석지휘자로서 국내외 최정상의 아티스트들과의 호흡으로 세계 수준의 연주들을 선보이며, 대형 교향악단이 주도하는 한국의 음악 지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ES와 베토벤 교향곡 &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를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다. 현대음악 연주에도 관심이 많아서 TIMF앙상블 등 현대음악 전문단체들과도 작업한 바 있다.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이규서는, 서울대 음대에서 마에스트로 임현정을 사사했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청중들을 만나고 있다.

악장
이석중

Concertmaster
Seok-Jung Lee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하였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여 예술사와 전문사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시 도미하여 전액 장학생으로 예일대학교에서 석사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국내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 하였으며, 한국음악협회 주관인 해외 파견 콩쿠르에서 현악 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솔리스트로서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미국, 불가리아,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등에서 개인 독주회를 가지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 바 있다.

현재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디토 오케스트라 악장,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리더, 라스 앙상블 리더, TIMF앙상블 정단원으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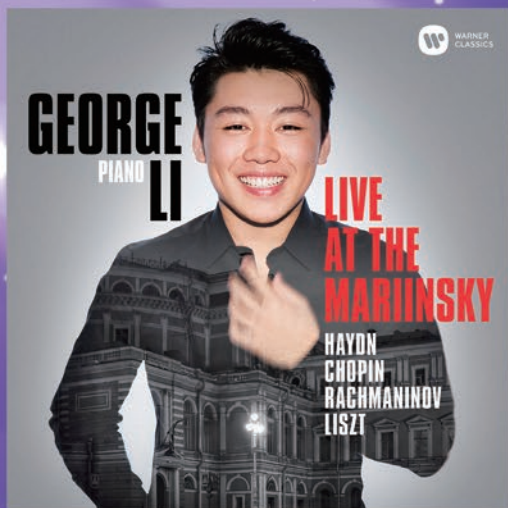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연주자들과 작업한 바 있으며,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 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디토 앙상블과 함께한 워너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의 대표 앨범!!!



신동 중의 신동 '조지 리' 데뷔 앨범! 〈마린스키 극장 라이브〉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리스트: 위안 3번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2번

조지 리 - 디지털 앨범



▶ Sunflower
▶ 쇼팽: 야상곡 C#단조



▶ 리스트: 라 캄파넬라
▶ 리스트-코르사코프: 왕비의 비행
▶ 호로비츠: 카르멘 주제에 의한 변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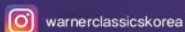
‘임동혁’ 최초의 협주곡 녹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마르타 아르헤리치 협연곡!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



피아노 아티스트 ‘지용’의 바로크 앨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워너뮤직코리아 | 클래식 마케팅부 T. 02) 560-7960~1 | www.warnerclassics.com





현과 현의 깊은 대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이수민 참여

리처드 용재오닐

9 번째 정규 스튜디오 앨범

DUO



DG40210

이번 앨범에는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 2중주,
베토벤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곡

영국의 작곡가 프랭크 브리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애가'
조지 벤자민의 비올라 등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다양한 작곡가와 그들의 2중주 곡들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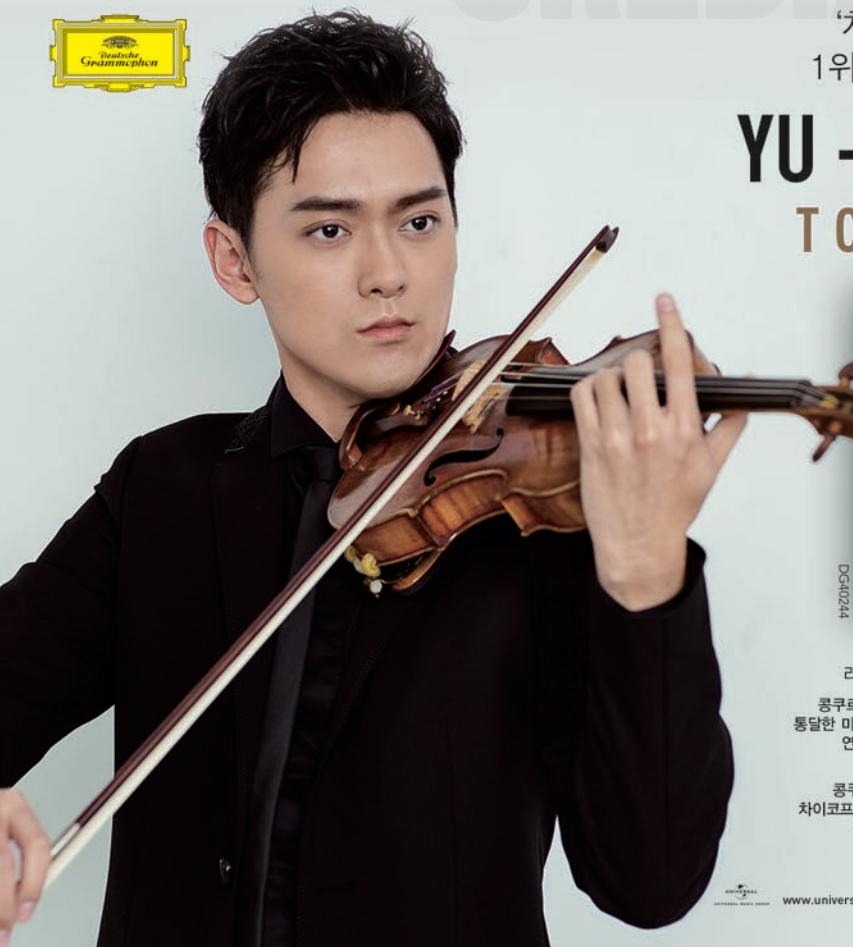
CREDIA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입상한 유치엔 첩

YU - CHIEN TSENG

TCHAIKOVSKY



DG40244

미하일 플레트네프 지휘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인정받은 유치엔 첩의 바이올린 실력과 러시아 음악에
통달한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RNO)의
연주가 어우러져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곡 특유의 감성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콩쿠르 최종라운드 연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D 장조, Op.35'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우울한 세레나데, Op. 26'
경쾌함과 유머를 간직한 '왈츠 스케르초, Op.34' 수록



www.universalmusic.co.kr

universalmusic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2007	6월 20일	양상블 디토 시즌1 <DITTO Effect>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7	6월 26일	양상블 디토 &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2007	6월 29일	양상블 디토 &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08	6월 15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08	6월 18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성남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08	6월 20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부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8	6월 21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2008	6월 24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천안	천안시민문화회관 봉서홀
2008	6월 25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8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8	7월 1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2008	7월 2일	양상블 디토 시즌2 <DITTO Plus>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9	6월 19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9	6월 21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2009	6월 23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거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9	6월 25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2009	6월 27일	디토 카니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9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9	7월 1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성남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09	7월 2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09	7월 3일	양상블 디토 시즌3 <Love Songs>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2009	8월 27일	디토 콘체르토 콘서트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2009	8월 30일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2010	5월 29일	디토 카니발	서울	창동열린극장
2010	6월 23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010	6월 24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김해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2010	6월 25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2010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일본 데뷔 콘서트	도쿄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国際フォーラム
2010	6월 29일	양상블 디토 일본 데뷔 콘서트	오사카	The Symphony Hall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2010	7월 4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0	8월 14일	디토 카니발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0	8월 24일	디토 카니발	부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0	9월 4일	양상블 디토 콘서트	서울	창동열린극장
2010	9월 5일	한·중·일 문화서를 콘서트 - 양상블 디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0	9월 7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0	9월 9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춘천	춘천문화예술회관
2010	9월 11일	양상블 디토 시즌4 <Bohemian>	포항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0	11월 10일	디토 카니발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10	11월 26일	디토 카니발	천안	천안시민문화회관 봉서홀
2011	6월 26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군포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2011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2011	6월 29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2011	7월 2일	디토 올림픽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1	7월 3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1	9월 2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서산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	9월 3일	양상블 디토 시즌5 <Impressionism>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11	9월 4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Merci DITTO>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1	9월 6일	양상블 디토 한일문화교류 콘서트	도쿄	Kioi Hall 紀尾井ホール
2011	9월 8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2011	9월 14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김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1	9월 16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1	9월 17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1	9월 18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포항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2	5월 3일	양상블 디토 - 도쿄 '열광의 날' 페스티벌	도쿄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国際フォーラム
2012	5월 4일	양상블 디토 - 도쿄 '열광의 날' 페스티벌	도쿄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国際フォーラム
2012	5월 5일	양상블 디토 - 도쿄 '열광의 날' 페스티벌	도쿄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国際フォーラム
2012	5월 6일	양상블 디토 - 도쿄 '열광의 날' 페스티벌	도쿄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国際フォーラム
2012	6월 23일	Different DITTO	서울	LG아트센터
2012	6월 30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 디토 오디세이	여수	엑스포 홀
2012	7월 1일	디토 오디세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2	7월 3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2	7월 5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
2012	7월 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여수	엑스포 홀
2012	7월 7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2	7월 8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회)
2012	8월 24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앙코르	부산	부산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12	8월 25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앙코르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12	8월 26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앙코르	대구	계명아트센터
2012	8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앙코르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12	8월 30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The Encore!>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	8월 31일	양상블 디토 시즌6 <백야> 앙코르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3	6월 15일	양상블 디토 <BACH for SOLO>	서울	LG아트센터
2013	6월 18일	Different DITTO <The Voice>	서울	LG아트센터
2013	6월 20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3	6월 21일	양상블 디토 <BACH for SOLO>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2013	6월 22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2013	6월 25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부산	부산문화예술회관
2013	6월 26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13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
2013	8월 29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구리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2013	8월 30일	양상블 디토 시즌7 <Code Name: BACH>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3	8월 31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BACH for SOLO>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3	9월 1일	양상블 디토 앙코르 <Code Name: BACH>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4	6월 20일	Different DITTO <그리하여, 밤>	여수	여수예술마루 대극장
2014	6월 22일	Different DITTO <그리하여,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4	6월 27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부평	부평아트센터
2014	6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군포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2014	6월 29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회)
2014	6월 30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부산	부산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14	8월 27일	Different DITTO <그리하여, 밤>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2014	8월 28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서울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2014	8월 29일	Different DITTO <그리하여, 밤>	화성	화성아트홀(유엔아이센터)
2014	8월 30일	양상블 디토 시즌8 <Dear AMADEUS>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
2015	6월 19일	Different DITTO <Black Angels>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2015	6월 20일	Different DITTO <Black Angels>	서울	LG아트센터
2015	6월 24일	양상블 디토 시즌9 <Schubertiology>	부산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2015	6월 26일	양상블 디토 시즌9 <Schubertiology>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15	6월 30일	양상블 디토 시즌9 <Schubertiology>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5	7월 2일	양상블 디토 시즌9 <Schubertiology>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2015	9월 22일	DITTO HITS	통영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2015	9월 23일	DITTO HITS	함양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5	9월 24일	DITTO HITS	공주	공주문예회관
2015	9월 26일	양상블 디토 중국 데뷔 콘서트 - DITTO HITS	상하이	Shanghai Concert Hall 上海音乐厅
2015	10월 1일	DITTO HITS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5	10월 2일	DITTO HITS	성남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15	10월 3일	DITTO HITS	홍주	홍주문화회관
2015	10월 6일	기돈 크레머 & 앙상블 디토	서울	장천홀
2015	10월 7일	기돈 크레머 & 앙상블 디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5	10월 9일	기돈 크레머, 크레메라타 발티카 & 앙상블 디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5	10월 10일	기돈 크레머, 크레메라타 발티카 & 앙상블 디토	대구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
2016	6월 16일	앙상블 디토, 임동혁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수원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2016	6월 17일	앙상블 디토, 임동혁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6	6월 18일	앙상블 디토, 임동혁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6	6월 22일	앙상블 디토 시즌10 <The Revolutionary>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6	6월 23일	앙상블 디토 시즌10 <The Revolutionary>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6	6월 28일	앙상블 디토 시즌10 <The Revolutionary>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6	6월 29일	앙상블 디토 시즌10 <The Revolutionary>	부산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2017	6월 21일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vertimento>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7	6월 23일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vertimento>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2017	6월 25일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vertimento>	수원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
2017	6월 28일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vertimento>	노원	노원문화예술회관
2017	6월 29일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vertimento>	대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7	7월 1일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7	7월 2일	디토 10주년 패밀리 콘서트 <디토 카니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	6월 12일	미샤 마이스키 & 디토	서울	롯데콘서트홀
2018	6월 16일	앙상블 디토 <Ep. 10+1>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018	6월 18일	앙상블 디토 <Ep. 10+1>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2018	6월 20일	앙상블 디토 <Ep. 10+1>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2018	6월 22일	앙상블 디토 <Ep. 10+1>	천안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18	6월 23일	앙상블 디토 <Ep. 10+1>	서울	롯데콘서트홀
2018	6월 24일	앙상블 디토 <Ep. 10+1>	익산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19	6월 19일	앙상블 디토 <디토 연대기>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	6월 20일	앙상블 디토 <디토 연대기>	용인	포은아트홀
2019	6월 21일	앙상블 디토 <디토 연대기>	부평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2019	6월 22일	앙상블 디토 <디토 연대기>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
2019	6월 28일	Different DITTO <메시앙, 그리고 최재혁>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019	6월 29일	디토 콘체르토 콘서트 <디토 meets 고양시 교향악단>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





Ensemble DITTO

DISCOGRAPHY

DISCOGRAPHY

악
보

DITTO Carnival



2009 DITTO Highlights



디토 in Live

The Revolutionary 혁명가들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



2010 DITTO Highlights



양상블 디토 정규 1집 DITTO HITS



2011 DITTO Highlights



백야 White Night



코드 네임 : 바흐 Code Name : BACH



디어 아마데우스 Dear Amadeus



슈베르티올로지 Schubertiology



다이내믹 라운드 Dynamic Round



양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DITTO Presents : DITTO BOX
www.dittobox.co.kr





Catch the Moments

디토 디지털 오디세이 (DITTO Digital Odyssey)는 CREDIA Music & Artists의 퍼블리싱 컴퍼니입니다.
감동의 순간들을 소중한게 담아, 시공을 벗어난 먼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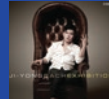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스테판 피
재키브



STOP &
LISTEN
지용



리스트
마니아
지용



비탈
엑스비전
지용



비탈 미아
로티니



The
Romantist
리처드 용재
오닐



Live
Ji-Yong
지용



Canto
Antigo
(오래된 노래)
신지아



언플러그드
VOL. 1
성민제 &
조윤성



신지아
in Live



Lovely Life
유키 쿠라모토
롯데백화점
개/폐점 BGM



최나경
in Live
<파리의 연인>



Songbook
Vol. 1
박지민



Danny Boy
대니구

*2019년 신보 발매 예정

대한민국, 클래식엔 빠지다 - 앙상블 디토 시리즈



앙상블 디토
<슈베르트
올로자>



앙상블 디토
<디어
아마테우스>



디토 in Live
<The
Revolutionary/
Divertimento>



앙상블 디토
<다이내믹
라운드>



DITTO 10TH
Anniversary <DITTO BOX>

BOOK



클래식 보헤미안
앙상블 디토
포토에세이
(문학동네)



나와 당신의 베토벤
리처드 용재 오닐이
 들려주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리처드 용재오닐 노승림 공저/오른하루)

PODCAST



디토 클래식

클래식에 의한, 클래식을 위한,
클래식의 모든 것
- 술술클래식 시즌 1
- 디토 오디세이 시즌 1
- 디토 피날레 기념 Timeless DITTO 3부작
- 現 매주(토) 오피디의 댕큐포터뮤직 업데이트

술술 클래식

매너리, 소피, 대장부와 함께하는
진 국민 클래식 풍덩 프로젝트
- 술술클래식 시즌 2
- 술술클래식 시즌 3 (예정)

PROJECT

18세기의 클래식이 LP에서 CD로 이어지듯
21세기에도 누군가는 클래식을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AI로 만나는 클래식, 디토 디지털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디토 디지털 오디세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화형 챗봇(Chatbot), '미스터 디토(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NE KOREA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MYUNG-WHUN CHUNG

ORCHESTRA

2019.8.18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MBC CREDIA Projects MIOIM

주관 CREDIA INTERNATIONAL

후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KOREAN AIR 5G

예매 Club BALCONY 예술의전당 공연 후원 인터파크 티켓

티켓 R석 12만원 | 5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효성과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

요요마 바흐 프로젝트

YO-YO MA THE BACH PROJECT



2년간 6개 대륙
36개 도시 월드 투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

2019.9.8 SUN 6 PM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몇 번을 들어도
경탄할 수밖에 없다”

“괴르네 음악의 강렬함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뒤지지 않는 연주”

- 2018.4 위그모어홀 리뷰 중 -

PRESENT SONGS BY SCHUBERT

MATTHIAS GOERNE & SEONG-JIN CHO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슈베르트 가곡들 | 방랑자, 슬픔, 소년과 죽음, 지옥으로 떠나는 길, 무덤 파는 이의 노래, 인간의 한계, 향수, 하프 연주자의 노래, 방랑자의 노래, 어부의 사랑의 기쁨, 겨울밤, 저녁별, 여름밤, 사랑스러운 별

2019.9.18 WED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ENERAL MANAGEMENT CREDIA Music & Artists
EXECUTIVE PRODUCER Jae-Ock Chung
MUSIC DIRECTOR Richard Yongjae O'Neill
PRODUCER Kangwon Lee
 Dami Kang

ARTIST	MENTORS & FRIENDS
Richard Yongjae O'Neill	Gidon Kremer
Johnny Lee	Kyung-Wha Chung
Patrick Jee	Mischa Maisky
Yoon Soo Lee	Goto Ryu
Stefan Pi Jackiw	Tetsuji Honna
DaXun Zhang	Ward Stare
Dong Hyek Lim	Ki-Sun Sung
Michael Chang	TIMF Orchestra
Michael Nicolas	Sergei Nakariakov
Ji	Zia Hyunsu Shin
Shunske Sato	Gautier Capuçon
Daniel Chong	Mason Bates
Han Kim	Adriel Kim
Kyeong Ham	Min Chung
Siwoo Kim	Soo-yeoul Choi
Ying Xue <small>The Parker Quartet</small>	Francesco Tristano
Jessica Bodner <small>The Parker Quartet</small>	Alice Sara Ott
Kee-Hyun Kim <small>The Parker Quartet</small>	Clara Jumi Kang
Seok-Jung Lee	Stefan Vladar & Vienna Chamber Orchestra
Minje Sung	Jaeil Jung
Jay Campbell	Jiyeong Mun
Steven Lin	Veits Quintet
Danny Koo	Ehnes Quartet
Yoonsoo Yeo	Kaori Muraji
Ao Peng	Chi-ho Han
Yu-Chien Tseng	
Taeguk Mun	
DITTO Orchestra	

CREEDIA PRODUCTION
STAFF 2007-2019

강다원 강석영 강민선 권현주 김가윤 김보전 김소영 김수영 김수진 김연수
김유나 김인주 김자연 김지선 김지연 김재완 김재희 김혜성 김혜민 김효진
명순호 민지희 박보영 박새로니 박솔미 박영현 박은주 박은하 서윤경 서희진
손미진 송희경 오정미 우진관 육경희 윤정란 윤혜진 이경미 이소정 이서영
이유은 장세호 장수연 장지영 정다희 조성민 조수민 조은정 주은호 차아영
차은희 최길수 최민경 한소영 한주희 한지연 허지연 현지은 황성실 황지원

SPECIAL THANKS TO

김태중 작가 박진우 작가 최종범 작가 태식그룹 Studio 152 김한상 유성준
하재욱 작가 석창우 화백 이동준 실장 디자인 바름 엘리펀트
MNLP 피그말리온 정보휘 실장 박기원 실장 김현석 감독 이현정 디자이너
이전호 작가 김민정 연출 최진 감독 김경욱 감독 박하영 감독
이막컴퍼니 진영준 감독 김희신 감독 최은혜 감독 장세웅 감독
이윤지 박지선 장동선 김주원 한예리
양영은 노승림 이지영 이재훈 이준형 송주호
TIMF양상블 디토 오케스트라 이대호 소장 정미경 실장
대한항공 언더스탠드 에비뉴 메가박스 오픈하우스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플렉서스
마리끌레르 코스모폴리탄 코카콜라 네이버 뮤직
MBC TV 예술무대 한봉근 PD 한경화 작가
SIEG 롯데백화점 삼익악기 CJ문화재단 유니세프 언더스탠드에비뉴 현대백화점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롯데콘서트홀 호암아트홀 충무아트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안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Tokyo International Forum 東京國際フォーラム
Osaka The Symphony Hall ザ・シンフォニーホール
Kioi Hall 紀尾井ホール Shanghai Concert Hall 上海音乐厅
이상욱(Studio Bob) 김수동 박진호 이은비 심규택 이동훈 전성빈
문인대
그리고 디토에 공감해준 모든 분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complex, abstract pattern of radiating lines. These lines originate from various points and extend outwards,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The lines are rendered in shades of light gray, with some appearing more prominent than others, giving the overall effect a three-dimensional, architectural quality. The lines are not perfectly straight, adding to the organic and dynamic feel of the design.

2019
DITTO
Festival

THANK YOU

2007 - 2019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2019

DITTO FESTIVAL
디토 페스티벌

CRE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EDIA MUSIC & ARTISTS

CREEDIA
INTERNATIONAL

CREEDIA
ENTERTAINMENT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